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2 Q
2021
vol.23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해외 VC 시장 동향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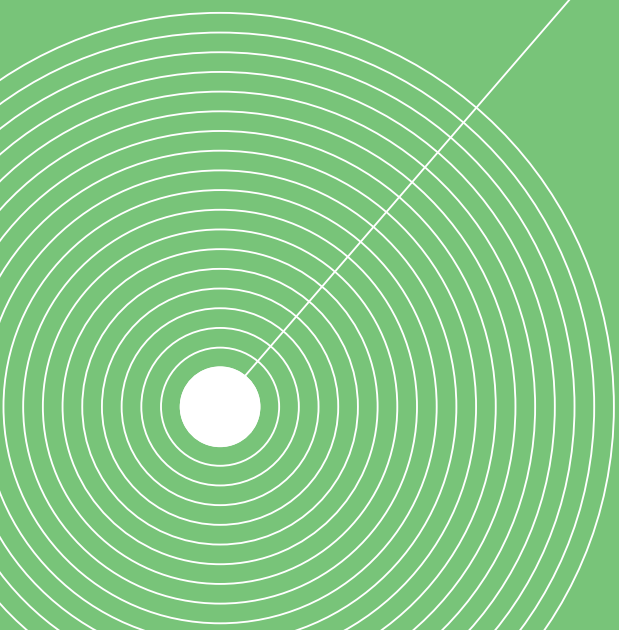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Q 2021 VOL. 23

04 ←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18 ←  해외 VC
시장 동향

50 ←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발행처
한국벤처투자

발행인
이영민

문의사항
marketwatch@kvic.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편집·기획
한국벤처투자 www.kvic.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계간 저널입니다.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모태 출자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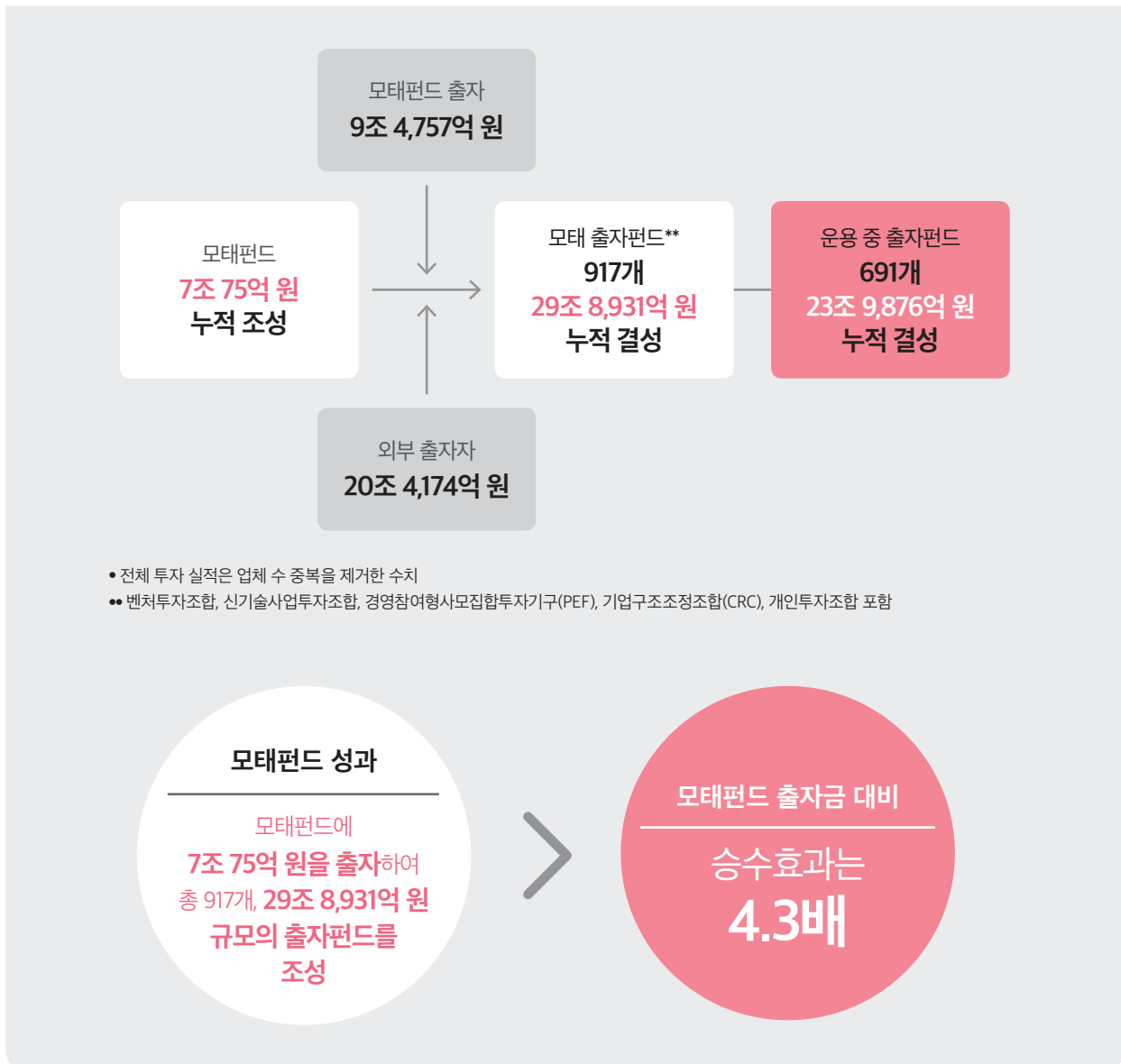
결성 /
투자 /
회수 동향 /

해당 보고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1년 2분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모태펀드 개요

2021년 6월 말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7조 75억 원이며, 20조 4,174억 원의 외부 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29조 8,931억 원 규모, 총 917개의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691개, 23조 9,876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917개**의 출자펀드를 통해 7,804개사*에 총 23조 1,227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모태 출자펀드 결성

♣ 2021년 2분기 모태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21년 4~6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16개, 3,276억 원 규모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GP:위벤처스)'로 315억 원 규모이다.

표 1 2021년 2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억 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헬스케어MIP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메이플투자파트너스	205	80	4.12
중진	버팀목	2021토니브릿지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토니인베스트먼트	200	120	4.29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에스케이티인피니툼게임펀드	벤처투자조합	인피니툼파트너스	137	50	5.1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비엔케이 스마트 비대면 펀드	벤처투자조합	비엔케이벤처투자	200	80	6.15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롯데비대면·모빌리티펀드	벤처투자조합	롯데벤처스	172	60	6.23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SF-WE언택트WE펀드2호	벤처투자조합	위벤처스	315	100	6.25
중진	일자리매칭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 펀드 2호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205	200	6.25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크리스탈 비대면 펀드 1호	벤처투자조합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125	50	6.25
혁신모험	창업초기 일반	아주 좋은 창업초기 펀드	벤처투자조합	아주아이비투자	145	75	6.21
혁신모험	창업초기	퓨처플레이혁신솔루션펀드	벤처투자조합	퓨처플레이	230	50	6.22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엘앤에스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엘앤에스벤처캐피탈	300	180	6.11
과기정통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케이앤 디지털미디어콘텐츠1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앤투자파트너스	260	161	5.4
도시재생	도시재생	씨씨브이씨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	벤처투자조합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250	200	5.28
국토교통혁신	공유주택	어니스트 밀레니얼 주거혁신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어니스트벤처스	125	100	4.6
특허	IP직접투자	IDIP투자제1호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200	118	6.9
특허	IP직접투자	IDIP투자제2호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207	122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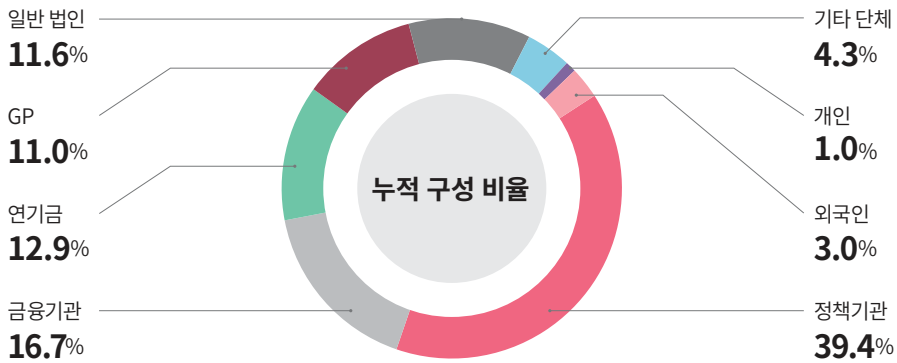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2021년 6월 말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1조 7,705억 원(39.4%)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5조 38억 원(16.7%), 연기금 3조 8,576억 원(12.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에도 정책기관 다음으로, 금융기관(2,432억 원), 연기금(2,15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억 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021.06	5,552	2,432	2,150	1,467	2,148	436	117	0	14,302
누적	117,705	50,038	38,576	32,849	34,532	12,916	2,984	9,034	298,931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모펀드, 기금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개인
외국인	외국소재 개인 및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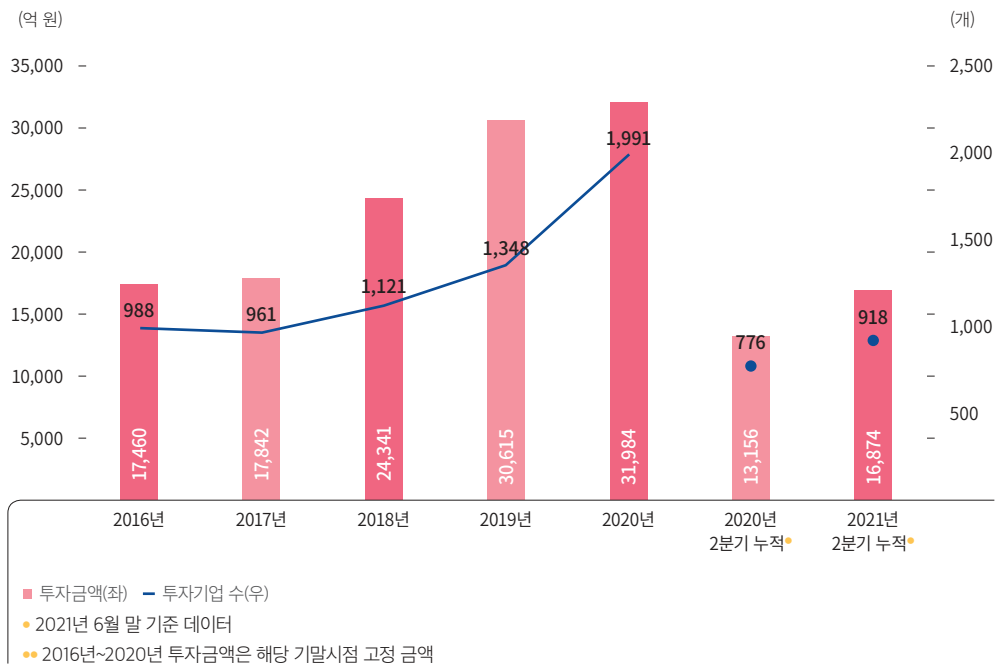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투자

♣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21년 2분기 내 332개 모태 출자펀드가 918개 기업에 총 1조 6,87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8.3%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18.3% 증가하였다.

그림 3 최근 5년간 및 2021년 2분기 누적 투자 추이



출처 한국벤처투자

♣ 투자금액 상위 기업

2021년 2분기 누적 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투자기업당 1.5개 펀드가 18.4억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187억 원으로 주로 단일 펀드에서 집중 투자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금액 상위권 기업들의 업종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3 2021년 2분기 누적 모태 출자펀드 투자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 개, 억 원)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대)	업종 분류(중)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에스원피앤피	기타	목재/종이/인쇄/가구	1	271
2	시아스	기타	음식료	1	260
3	인플루엔셜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1	250
4	○○○○○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1	191
5	크몽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3	167
6	오픈엠티테크놀로지	ICT제조	반도체/전자부품	4	160
7	에너지에버배터리솔루션	전기/기계/장비	전기장비	4	160
8	○○○○○	바이오/의료	의료용물질/의약품	3	150
9	○○○○○	유통/서비스	전문서비스	1	136
10	미코	전기/기계/장비	일반기계	1	125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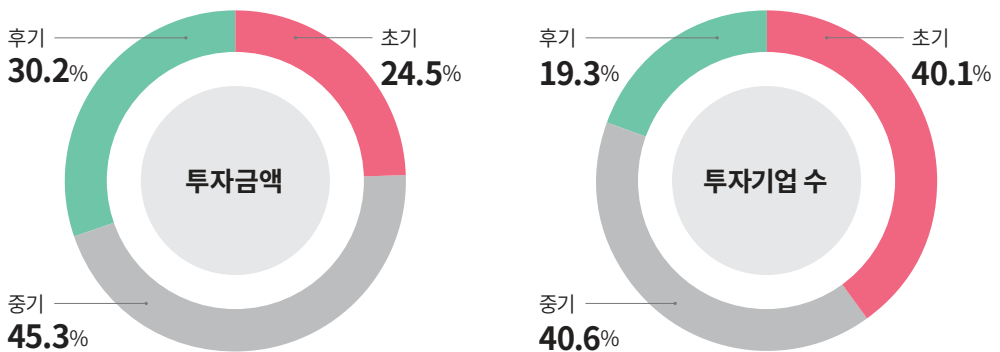
• 기업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을 비실명 처리함

♣ 업력별 신규 투자

2021년 2분기 누적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4,135억 원(24.5%),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7,642억 원(45.3%),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5,097억 원(30.2%)이 투자되었다. 투자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기기업 370개사(40.1%), 중기기업 374개사(40.6%), 후기기업 178개사(19.3%)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약 투자기업 수가 약 193개가 늘어나며, 투자금액 또한 30.8% 증가한 1조 6,874억 원을 기록하였다. 2분기에 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투자금액 기준으로 중기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투자기업 수(누적) 기준으로는 초기(370개사)와 중기기업(374개사)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초기기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기업 수는 41개가 증가한 반면, 투자금액은 오히려 776억 원 감소한 4,135억 원을 나타내면서, 기업당 투자금액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 2021년 2분기 누적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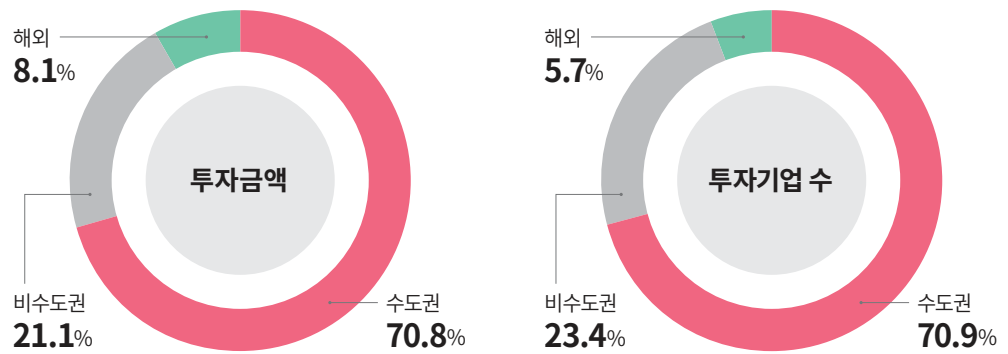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투자기업 수 918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2021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전분기 대비 수도권 집중 추이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1,935억 원(70.8%)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3,542억 원(21.1%),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1,368억 원(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8% 크게 증가하였으나, 해외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오히려 592억 원 줄어들면서, 투자금액 기준 비중이 8.1%로 크게 감소하였다. 수도권 내 투자금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지역은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는 비중은 낮으나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1% 증가한 506억 원을 기록하였다. 5대 광역시의 투자금액 규모는 지역별 다소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억 원이 감소한 310억 원을 기록한 반면 5대 광역시 내에서 비중이 가장 낮았던 광주의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배 증가한 291억 원을 기록하였다. 기타 지방은 96개 기업에 1,792억 원을 투자되며, 전체 지역 내에서 약 10.6%를 기록하였다. 경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0.8% 감소한 154억 원을 기록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5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투자기업 수 918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구분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방)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2021년 2분기 누적 기준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여전히 바이오/의료 업종으로 총 4,096억 원이 투자되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4.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ICT서비스 3,868억 원(22.9%), 유통/서비스 2,823억 원(18.9%) 순으로 기존의 순위가 변동이 없었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ICT 서비스(27.4%), 유통/서비스(18.2%), 바이오/의료(18.9%) 순으로 전분기에 이어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단위 기업당 투자금액은 화학/소재가 24.5억 원으로 타 업종 대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하였다.

그림 6 2021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바이오/의료	24.3
2	ICT 서비스	22.9
3	유통/서비스	16.7
4	전기/기계/장비	8.8
5	기타	8.5
6	영상/공연/음반	5.8
7	화학/소재	5.4
8	ICT 제조	4.2
9	게임	3.4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 서비스	27.4
2	유통/서비스	18.9
3	바이오/의료	18.2
4	영상/공연/음반	9.6
5	전기/기계/장비	8.4
6	기타	6.6
7	화학/소재	3.8
8	ICT 제조	3.8
9	게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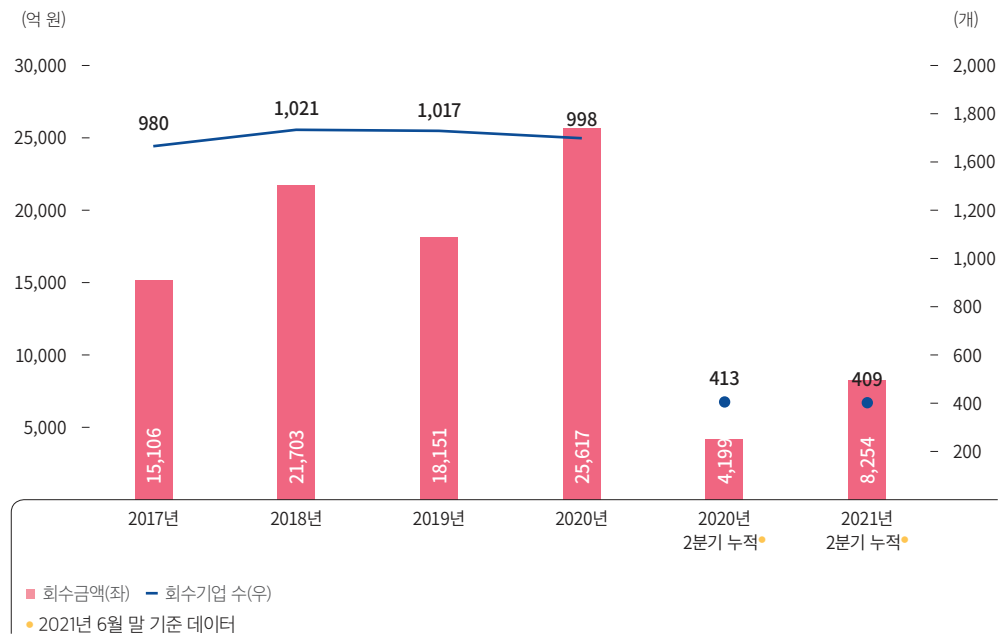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회수

♣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21년 2분기에는 295개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409개 기업을 통해 총 8,254억 원(회수원금 2,509억 원, 회수수익 5,745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원금 대비 3.3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96.6%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1.0% 감소하였다.

그림 7 최근 5년간 및 2021년 2분기 누적 회수 추이



♣ 회수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2021년 2분기에 모태 출자펀드의 각 투자기업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을 기록한 건은 1,432억 원을 회수하였고, 투자원금 대비 최대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한 건은 63.7배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35.7%(2,947억 원), 의료용물질/의약품 17.1%(1,410억 원), 도소매업 5.7%(474억 원), 영상(프로젝트 포함) 5.5%(456억 원), 게임소프트웨어 5.0%(410억 원)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IPO 현황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1년 2분기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8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분기 말 현재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은 30개사이다.

표 4 ____ 2021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신규 상장 현황

(단위 :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상장 연월	공모금액(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이모센스	코스닥	2008.11	2021.06	345	1,781	무선충전 차폐시트
라운테크	코스닥	2000.03	2021.06	90	1,002	반도체 및 FPD용 로봇시스템
제주맥주	코스닥	2015.02	2021.05	268	2,744	수제 맥주
진시스템	코스닥	2010.03	2021.05	285	1,185	분자진단기반 플랫폼 개발
삼영에스앤씨	코스닥	2000.06	2021.05	122	1,589	칩형 온습도센서, 상대습도센서, 미세먼지센서, 공기질 통합센서 노드 및 트랜스미터
씨앤씨 인터내셔널	코스닥	2013.10	2021.05	703	2,432	색조 화장품
에이치피오	코스닥	2012.04	2021.05	885	3,340	건강기능식품(유산균, 비타민)
해성티피씨	코스닥	1997.03	2021.04	130	1,565	감속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 및 판매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표 5 2021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상장 추진 현황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연월	진행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오비고	코스닥	2003.03	상장 예정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및 판매
에스디바이오센서	코스피	2010.12	상장 예정	혈당측정기, 콜레스테롤 분석 장치, 당화혈색소분석기
큐라클	코스닥	2016.05	상장 예정	혈관질환 특화 신약개발
딤노이드	코스닥	2008.02	심사 승인	딤러닝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맥스트	코스닥	2010.10	심사 승인	증강현실(AR) 플랫폼
크라프톤	코스피	2007.03	심사 승인	PC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바이젠셀	코스닥	2013.02	심사 승인	세포치료제 연구, 개발
원티드랩	코스닥	2015.04	심사 승인	고용알선/인재채용 등 지인추천기반 채용서비스 제공
와이엠텍	코스닥	2004.09	심사 승인	직류 고전압 스위칭 장치
엠로	코스닥	2000.03	심사 승인	구매 SCM 솔루션
실리콘투	코스닥	2002.01	심사 승인	글로벌 화장품 해외 직배송 플랫폼
에이비온	코스닥	2007.04	심사 승인	항암치료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에스앤디	코스닥	1998.12	심사 승인	식품소재, 건강기능성식품, 화장품, 의약품, 조미소재 등
아스플로	코스닥	2001.11	심사 승인	반도체용 고청정 배관자재
엑셀세라퓨틱스	코스닥	2015.09	심사 중	무혈청 줄기세포 배양배지
바이오플러스	코스닥	2003.05	심사 중	필러, 유착방지제, 조직수복용 생체 재료
차백신연구소	코스닥	2000.06	심사 중	B형 간염치료제, MBL(독감치료제, 조류독감, 사스)
비트나인	코스닥	2013.10	심사 중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연구
프롬바이오	코스닥	2006.06	심사 중	개별인정형 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셀바이오휴먼텍	코스닥	2015.07	심사 중	화장품용 마스크팩 시트, 흡습발열섬유(히트텍) 등
노보믹스	코스닥	2010.03	심사 중	위암 약제 적합성 테스트
와이바이오로지스	코스닥	2007.12	심사 중	완전인간항체 플랫폼 및 신약개발
엔캠	코스닥	2012.01	심사 중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전해액
지앤비에스엔지니어링	코스닥	2005.04	심사 중	Scrubber, Trap, NPS, 백연제거장치
에드바이오텍	코스닥	2000.06	심사 중	사료첨가제, 보조사료, 동물약품, 식품첨가물, 화장품
디어유	코스닥	2017.07	심사 중	프라이빗 메신저, 모바일 노래방, 팬클럽 관리 서비스
트림	코스닥	2010.01	심사 중	인공지능 딥러닝 검사기기, 스마트팩토리 구축, 머신비전 시스템
오아	코스닥	2014.01	심사 중	소형 가전제품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코스닥	2002.04	심사 중	확장현실(XR)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마인즈랩	코스닥	2014.01	심사 중	인공지능 음성인식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해외 VC

시장 동향 /

해외 VC 시장 관련
해외 발간 보고서 내용을
분기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PitchBook,
KPMG, CB Insights에서
발간한 **2021년 2분기(4~6월)**
보고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Venture Monitor, 2021년 2분기)

• Venture Monitor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이하 NVCA)과 PitchBook이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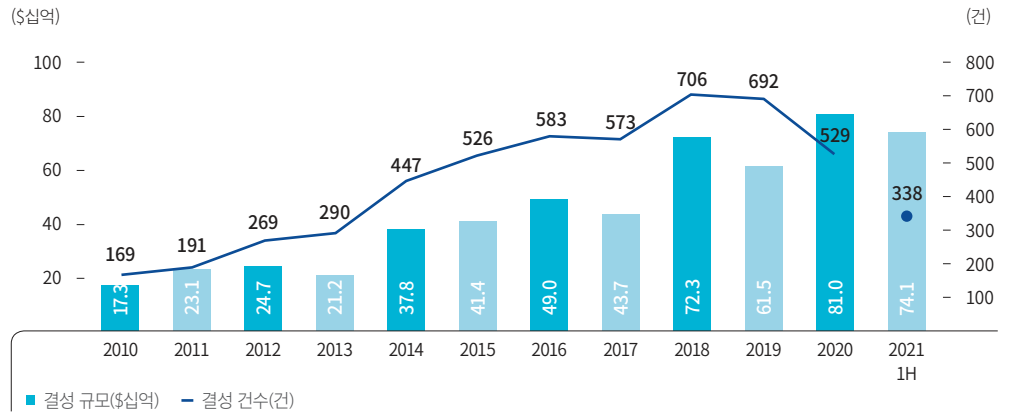
♣ 결성(Fundraising)

상반기 펀드 결성 규모는 총 741억 달러, 338개 펀드로 두 개 분기 만에 작년 온기 실적인 810억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었다. '21년도 연간 펀드 결성 규모는 총 1,0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작년 VC 펀드에서 배분된 금액('20.09말 기준)은 약 513억 달러로 '19년 온기 전체 배분 금액 대비 11.5%, 5년 전 대비 50.3% 상승하여 새로운 VC 펀드 결성 재원의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성 규모 평균값은 약 2억 3천만 달러로 20년도 온기 평균인 1억 8천만 달러 대비 약 22.6%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 규모 상승의 배경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메가 펀드(Mega-Fund) 결성 확대가 있었다. 총 15개의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며 전체 펀드의 개수의 4.6%, 펀드 규모의 48% 차지하였다.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 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로 작년 32.8% 대비 15.3%p 상승했다. 한편, 5천만 달러 미만의 마이크로 펀드는 전체 펀드 개수의 46%, 펀드 규모의 2.8%로 감소하였다. 또한, 최초 펀드레이징은 총 67건, 전체 결성 규모의 5.1%에 해당하는 36억 달러에 그쳤다. 펀드 결성 이력이 3개 이하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VC들의 결성 규모 비중은 25.4%로 14년도 이후 처음으로 30%를 하회해 대형 VC들에게 펀드 출자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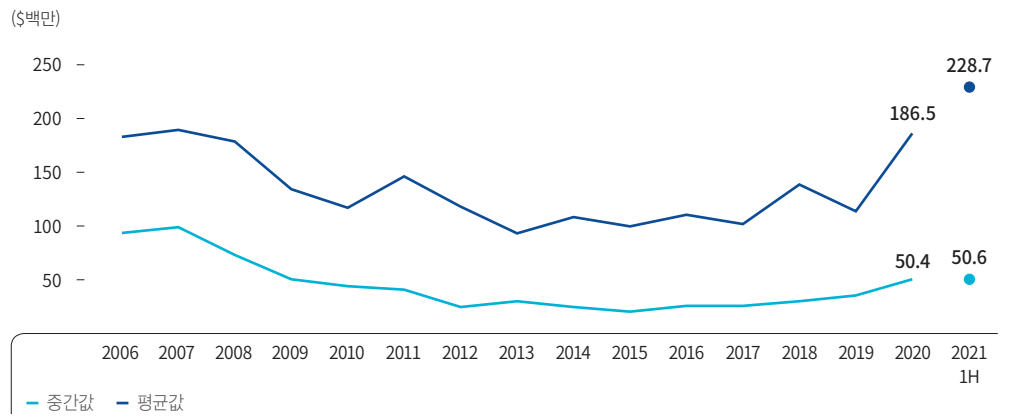
2분기 결성된 대표적인 펀드로 Tiger Global Management의 67억 달러 규모의 Tiger Global Private Investment Partners XIV LP 펀드와 TPG Capital의 22억 규모의 Rise Fund II 펀드가 있었다.

그림 1 미국 VC 펀드 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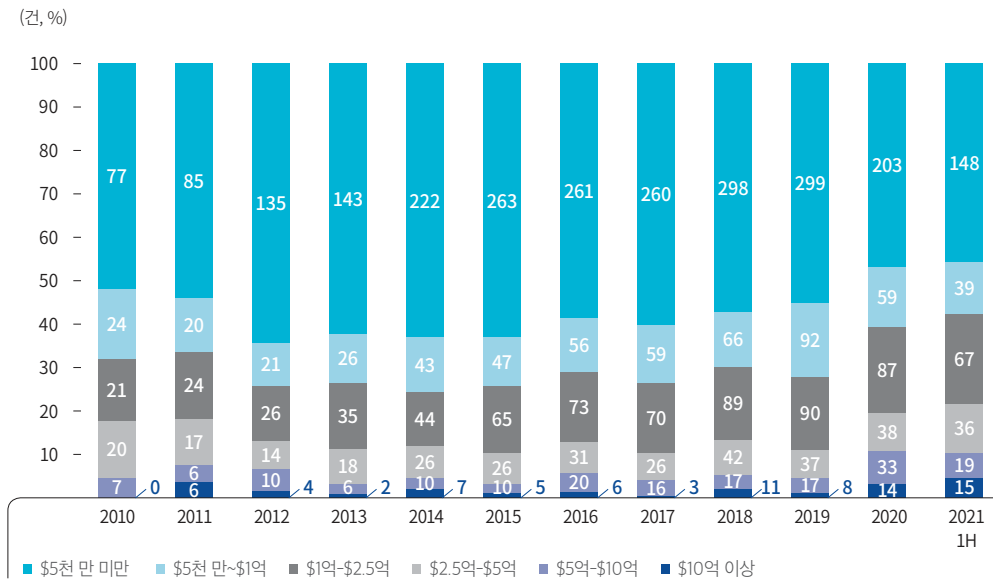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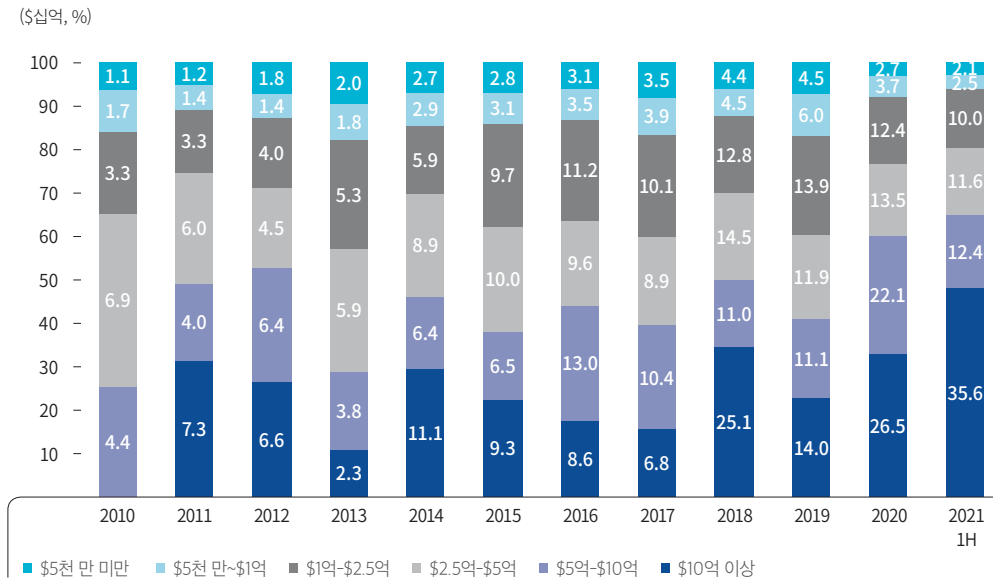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3 펀드 결성 규모 구간별 비중 : 금액 합계(상) 건수 기준(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투자(Deal)

2021년 상반기 동안 총 8,406건의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규모가 104% 상승했다. 메가딜(Mega-Deal, 1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은 상반기 만에 작년 온기 규모를 넘어섰다. 상반기에 이루어진 메가딜 규모는 855억 달러, 385건으로 작년 온기 752억 달러, 329건을 상회했다. 전체 투자 규모 중 상반기 메가딜 비중은 57.0%로 작년 온기 45.8% 대비 상승하였으며, 5년 전 31.8%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한편, 처음으로 VC 투자를 유치하는 최초투자 유치 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투자 건수 중 24.7%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미국의 이러한 VC 투자 규모의 확대는 크로스오버 투자자(Crossover Investor)^{*}가 딜에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나타났다. 크로스오버 투자자란 주로 상장 주식에 투자하나 비상장사도 함께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를 뜻한다. 크로스오버 투자자는 VC 대비 운용 자산 규모가 커서 자금력이 좋고, 투자기업 경영 개입이 적으며, 공모시장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IPO 시 기업에 도움을 준다. 특히, IPO 공모 자금 모집 시 S-1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예상 수치에 대한 제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Pre-IPO 투자는 IPO 공모 시 기업가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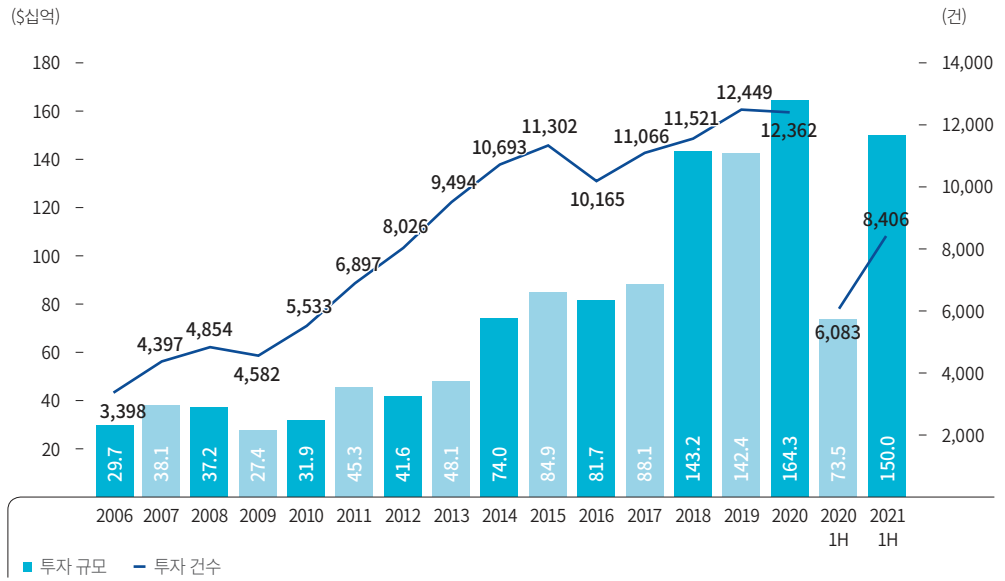
20년도 VC-backed IPO 건수 중 74%, 공모금액의 77% 수준에 해당하는 IPO 건이 크로스오버 투자자를 Pre-IPO 단계에서 유치했다. 상반기 크로스오버 투자자의 참여 규모는 작년 동일 기간 대비 135% 상승한 635억 달러로, 상반기 총 투자 규모의 42.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후기 단계, Pre-IPO 투자 건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 투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투자 단계(엔젤/시드, 초기, 후기) 유형별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 대비 모든 단계에서 투자 규모의 상승을 나타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엔젤 단계 70.4%, 시드 단계 33.3%, 초기 단계 79.3%, 후기 단계 120% 상승하였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2분기에도 후기 단계 상승이 뚜렷했다. 규모뿐만 아니라 투자 건수의 비중도 전체 건수의 32.6%를 차지하면서 지난 10년 중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단계별 투자 규모 평균값은 작년 온기 기준 대비 후기 단계 44.5%, 초기 단계 31.4%, 시드 단계 22.9%, 엔젤 단계 21.1% 상승하였다. Pre-Money 기준 기업가치 평균값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작년 온기 기준 대비 후기 단계가 99.0%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초기 단계와 엔젤 단계도 각각 55.6%, 83.5%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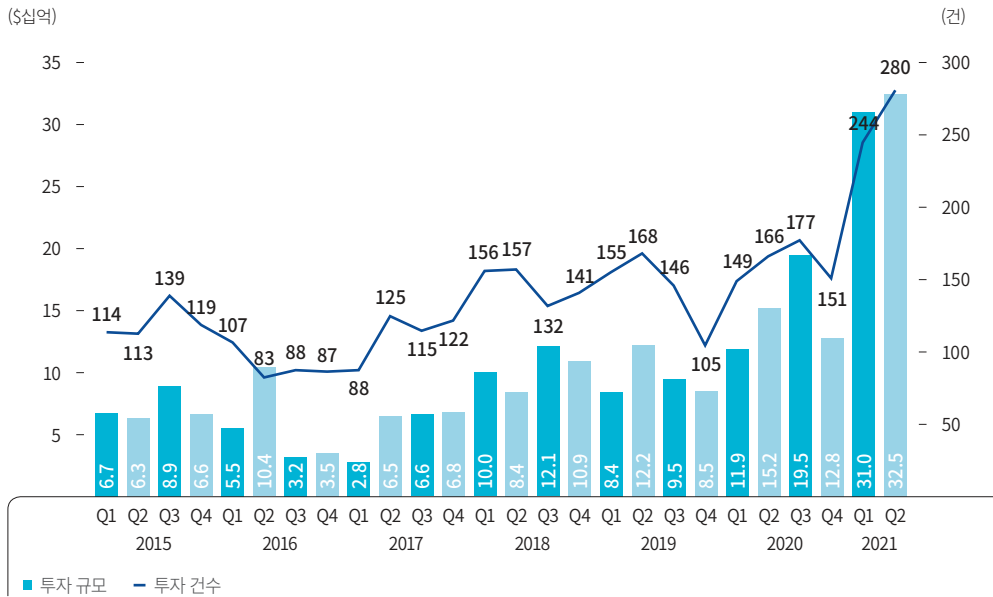
* Crossing Over into Venture, Pitchbook, 2021.04.20

그림 4 미국 VC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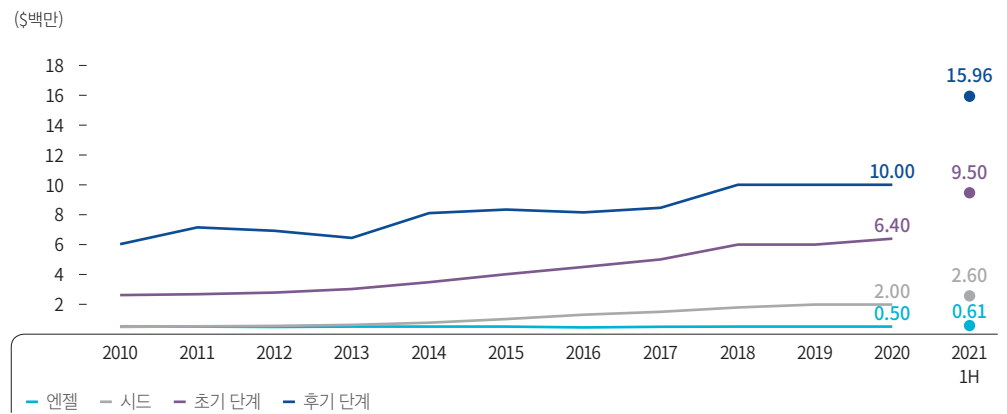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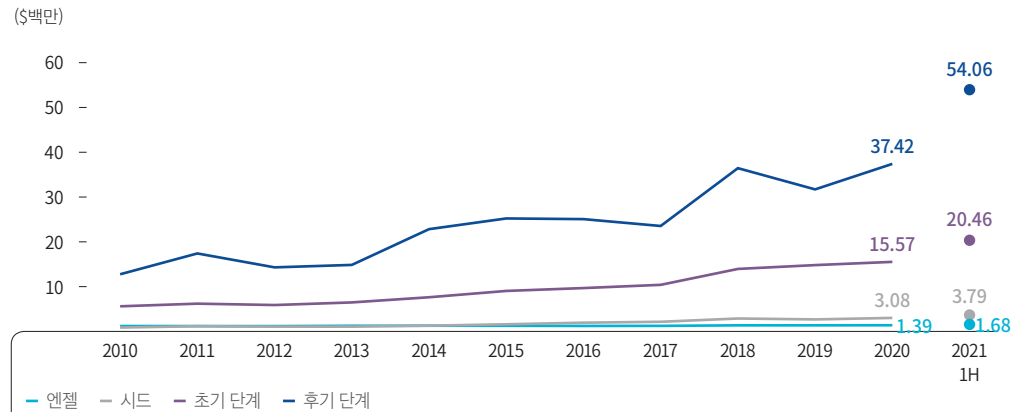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5 미국 VC 투자 중 크로스오버(Crossover) 투자자 분기별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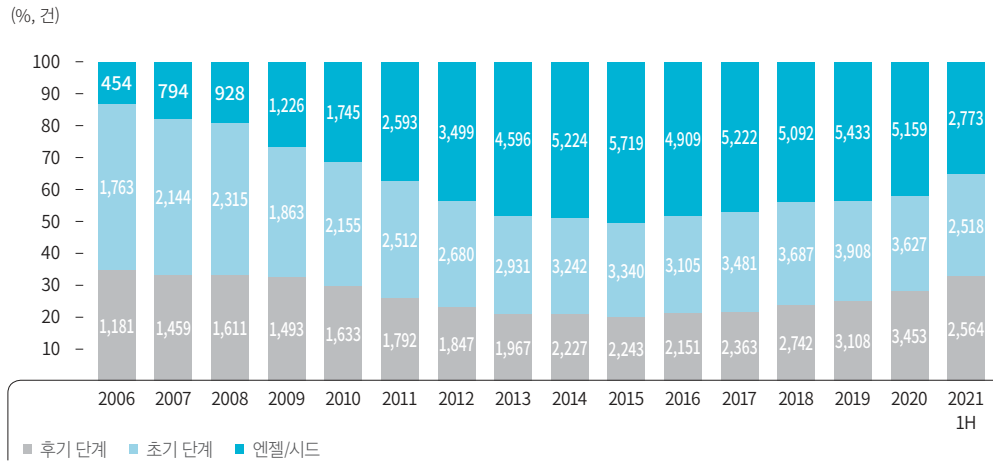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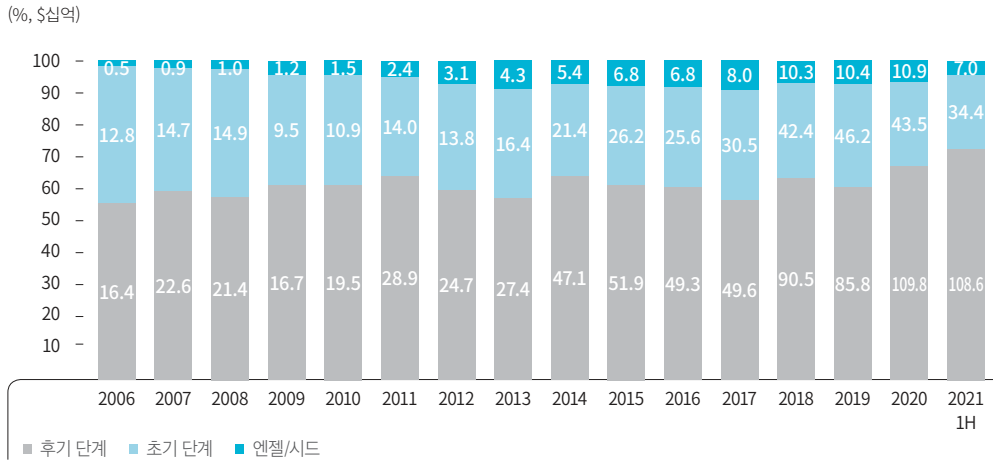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6 투자라운드별 투자 규모 평균값(상) 중간값(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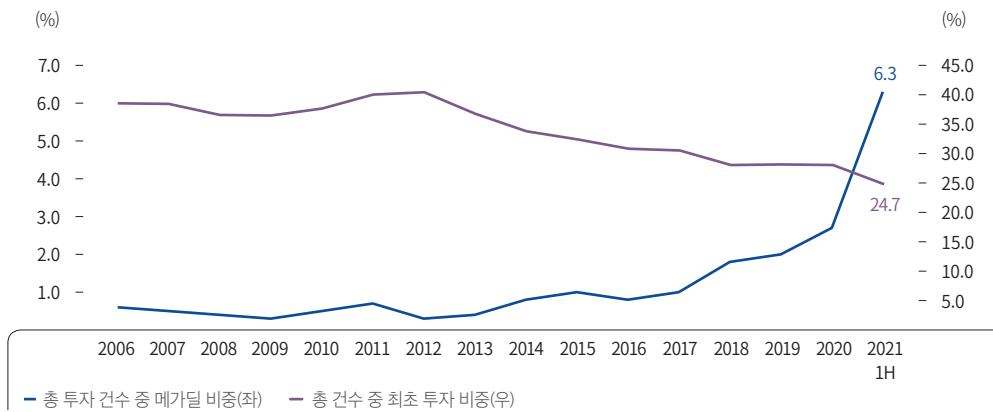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7 투자 단계별 투자 규모(상) 및 투자 건수(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8 메가딜 비중과 최초 투자 유치 비중 추세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엔젤/시드 투자(Angel/S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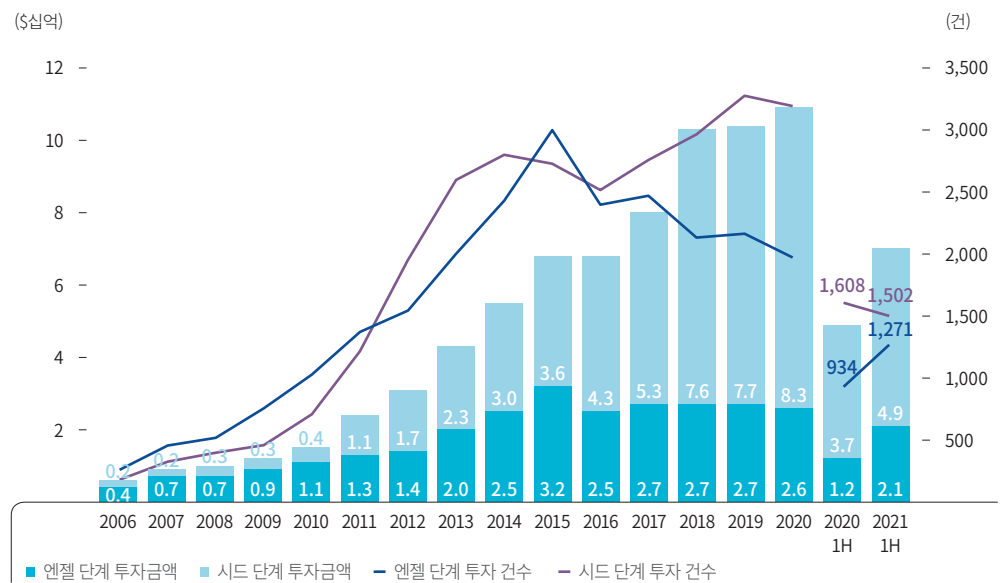
상반기 엔젤/시드* 단계 투자 규모는 각각 21억 달러, 49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70.4% 상승, 33.3% 상승하였다. (엔젤/시드 단계 합계 기준 작년 동기 대비 42.5% 상승) 엔젤/시드 투자 건은 추후에 보고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투자 심사가 활발해지면서 접촉 가능한 투자자 Pool이 넓어짐에 따라 엔젤 단계의 기업은 처음으로 세 개 분기 연속 약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전체 VC 단계별 총 투자금 대비 엔젤/시드 단계 비중은 각각 1.4%, 3.3%로 코로나 이전 19년도 비중인 1.6%, 5.1%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여러 시리즈 단계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시드 단계 투자에도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General Catalyst와 Founders Fund는 20년도에 결성된 45억 달러의 펀드로 21년도에 21개 시드 단계 투자를 진행하였고, Sequoia Capital도 9건의 투자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로 23건의 엔젤/시드 단계의 투자 건이 2천 5백만 달러 이상 규모로 이루어졌다. 엔젤/시드 단계 투자 규모 평균값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21%, 22.9%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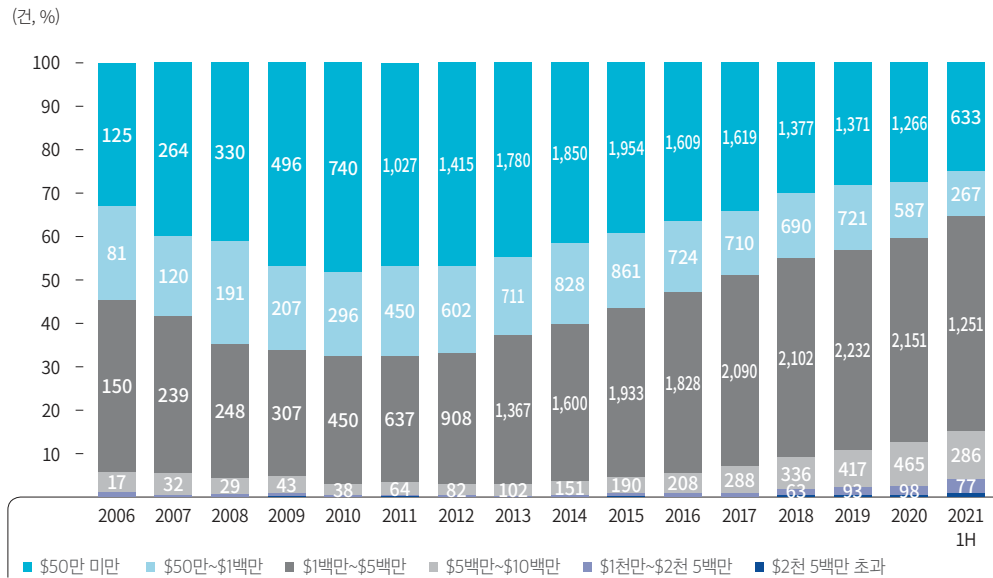
- 엔젤 단계와 시드 단계를 구분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엔젤 단계는 VC, PE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로 이루어진 투자 단계를 의미한다. 시드 단계는 VC, PE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 50만 달러 이하의 투자 건을 포함한다. 이외 언론 보도자료에서 특정 단계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단계에 포함시킨다.
- *'20년도 동기 기준 엔젤/시드 단계 투자 건수는 '20년 4Q 보고서 기준 4,650건에서 '21년 2Q보고서 기준 5,159건으로 10.9% 추가 보고됨.

그림 9 미국 엔젤/시드 단계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0 엔젤/시드 단계 투자 규모별 투자 현황(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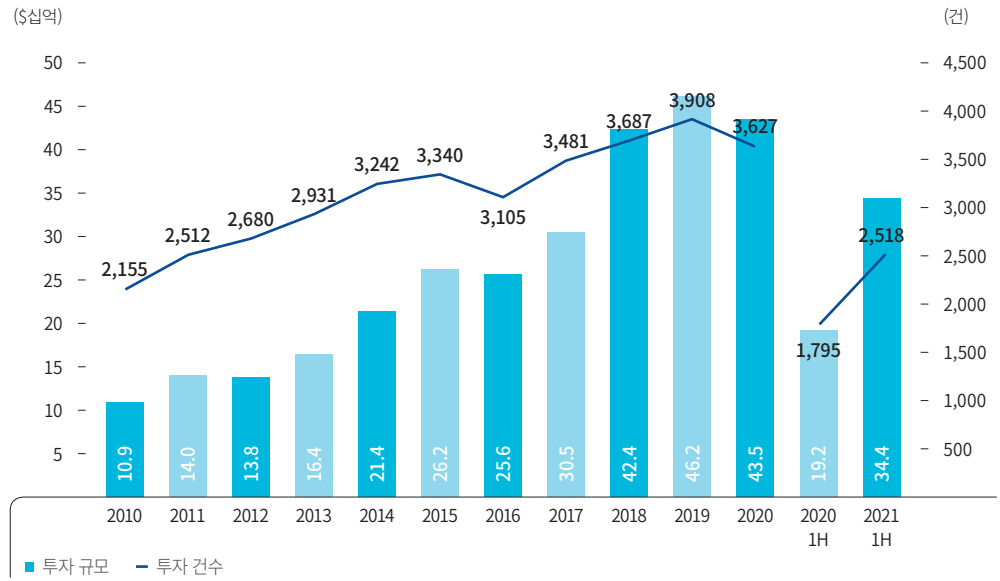
♣ 초기 VC 투자(Early-Stage VC)

상반기 초기 단계 투자 규모는 344억 달러, 2,5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규모가 79.3% 상승하였으며, 21년도 온기 기준으로 6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IPO로 확보된 회수 재원이 투자 단계에 유입됨과 아울러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좀 더 앞단의 투자 단계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초기 단계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초기 단계 중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건은 826건으로 총 투자 건수의 50%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5년 전 26.6% 수준과 대비된다. 대형 딜의 영향으로 투자 규모 평균값과 기업 가치(pre-money) 평균값은 각각 20.5백만 달러, 96.1백만 달러로 20년 온기의 15.6백만 달러, 61.7백만 달러 대비 각각 31.4%, 55.6%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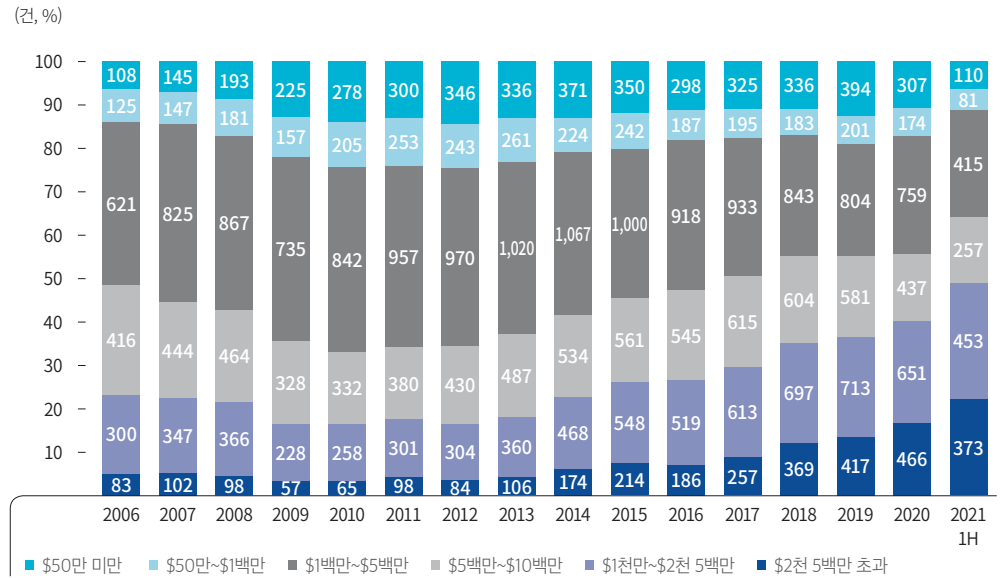
이러한 투자 규모와 기업가치 상승 배경에는 크로스오버 투자자(Crossover Investor)들의 참여 확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 및 매매 업체 Homeward의 3억 7천만 달러 시리즈 B 투자 건에 탭티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Blackstone Alternative Asset Management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크로스오버 투자자들의 대규모 초기 단계 투자가 기업의 진정한 기업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 대비 높은 투자 자금 공급이 기업가치를 견인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다.

그림 11 미국 VC 초기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2 초기 단계 투자 규모별 투자 현황(건수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후기 VC 투자(Late-Stage 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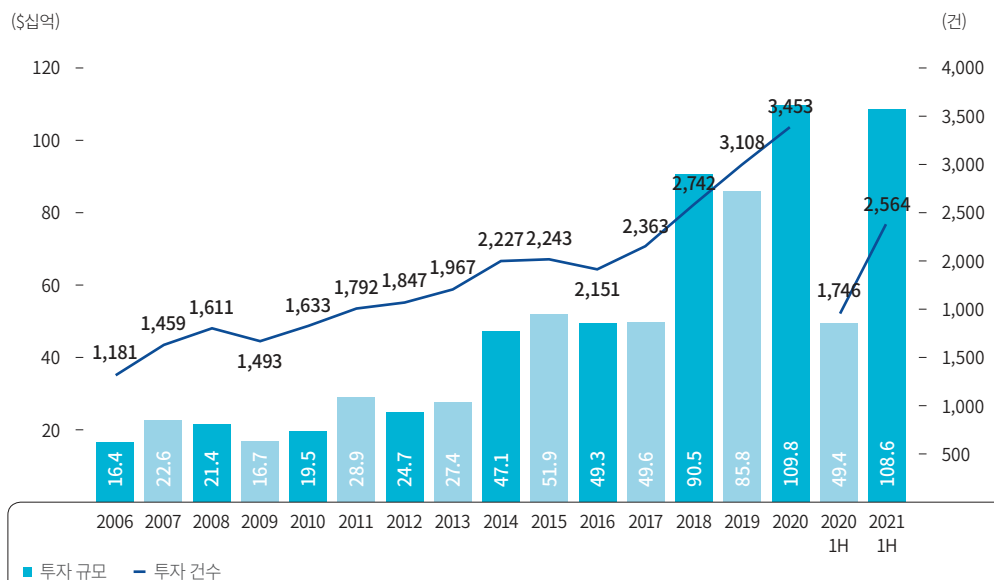
상반기 후기 단계 투자 규모는 총 1,086억 달러로 작년 상반기 대비 120% 증가하며 '20년도 온기 규모를 두 개 분기만에 달성하였다. 상반기 전체 투자 건수의 32.6%에 이르는 후기 단계 딜이 총 투자 규모의 72.4%를 차지하였다.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메가딜(Mega-deal) 투자 건의 83.6%(322건)가 후기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12분기 각각 160여 건의 메가딜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메가딜 상승 추세가 강했던 '18년 ~ '20년 분기 평균 후기 단계 메가딜 건수 52건의 3배 수준이다. 과거 시리즈 E, F단계가 메가딜의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시리즈 C, D 단계의 메가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과거보다 낮은 시리즈 단계에서 대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기 단계의 평균 투자 규모는 55.4백만 달러로 작년 온기 대비 45.7% 상승하였으며, 투자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도 9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작년 온기 대비 약 2배 상승하였다.

2분기 대규모 투자는 코로나로 온라인 결제가 활발해짐에 따라 성장세를 보이는 핀테크 분야에서 활발했다. 한때 Visa의 인수설로 주목을 받았던 Plaid와 기업 지출관리 서비스 업체 Brex는 각각 4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았다.

이와 같은 후기 단계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유동성 증가, IPO 시장 활황으로 회수 자원 확보 등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SPAC 투자 증가에 따라 기존 후기 단계 사모 시장 투자 수요를 공모 시장이 대체할 가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공급 감소 가능성에 따라 향후 후기 단계 투자의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

그림 13 미국 VC 후기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4 ____ 후기 단계 투자규모별 투자 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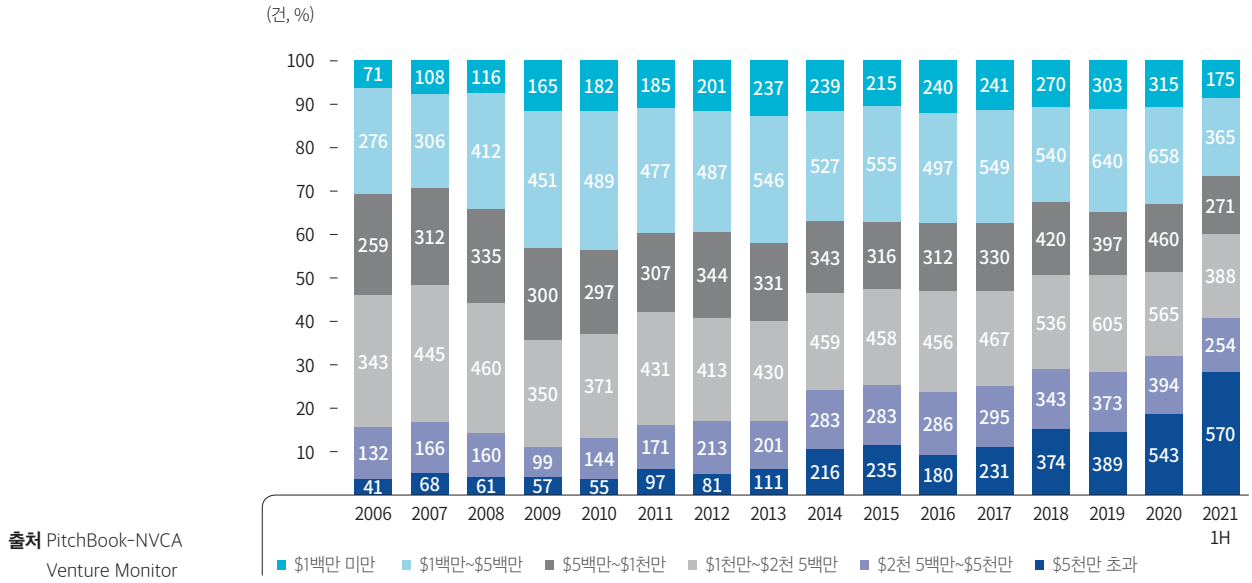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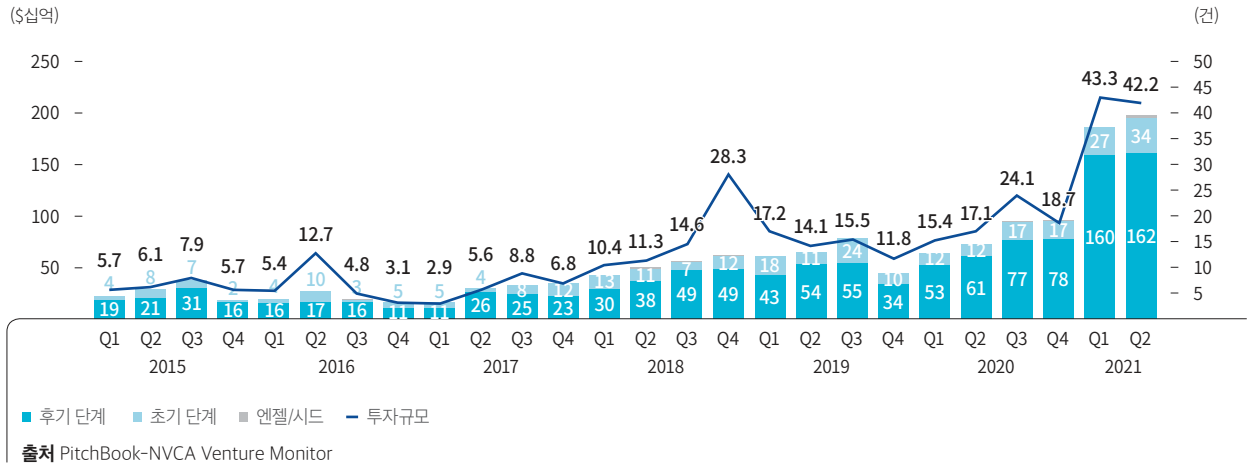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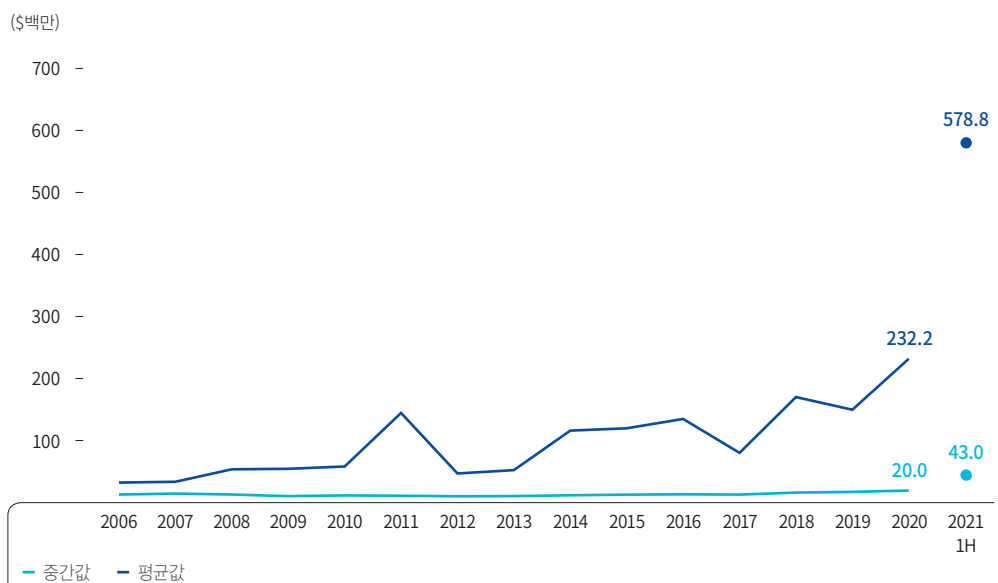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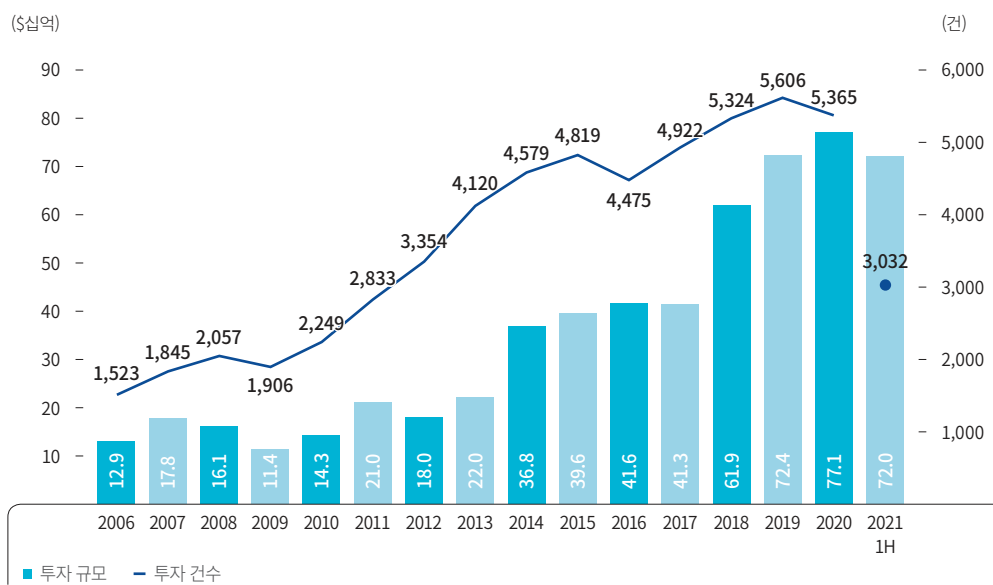
그림 15 ____ 미국 VC 메가딜 단계별 투자 건수 및 총 투자 규모 추세



♣ 분야별 투자 현황

21년도 상반기 동안 B2B 테크 분야에 3,032건의 7,250억 달러 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평균 투자기업 기업가치는 5억 8천만 달러로 작년 온기 대비 149%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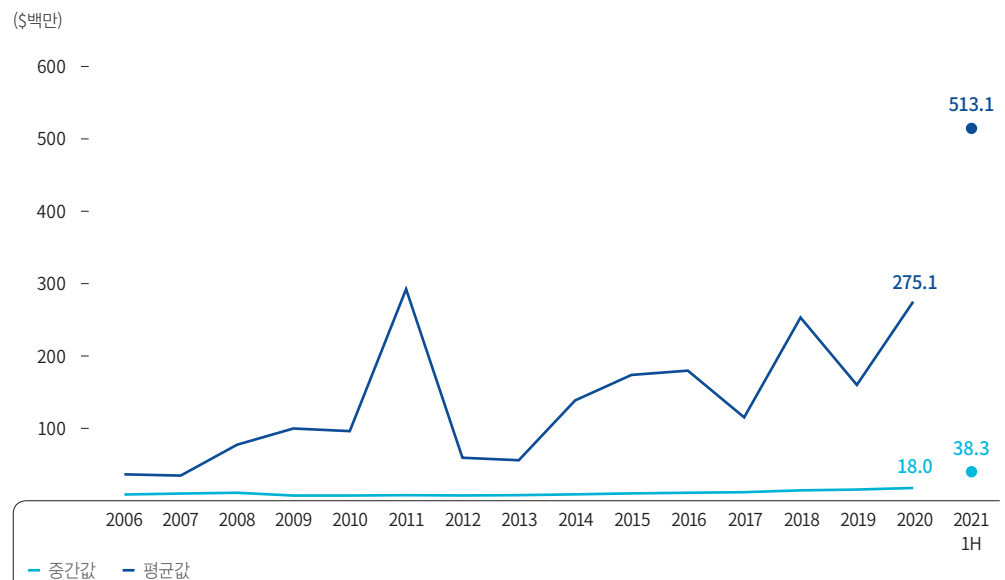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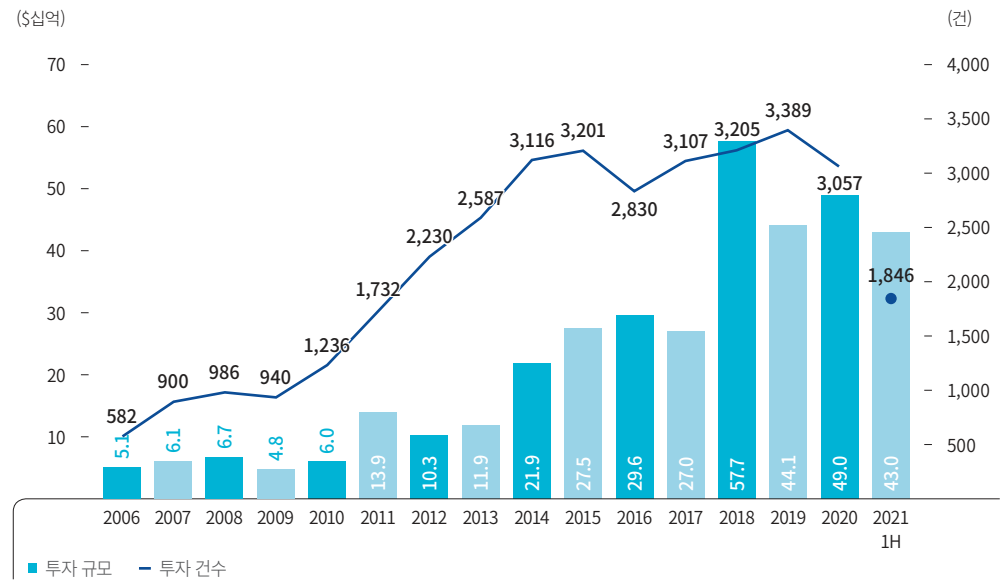
그림 16 미국 B2B 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B2C 테크 분야에는 B2B 테크의 60% 수준인 4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평균 투자기업 기업가치는 5억 1천만 달러로 B2B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대규모 딜로 평균값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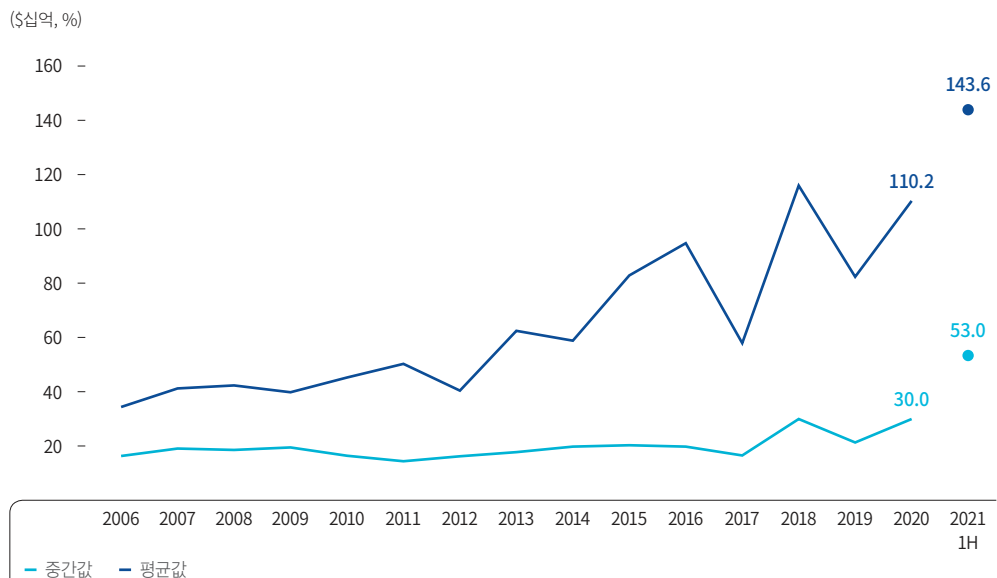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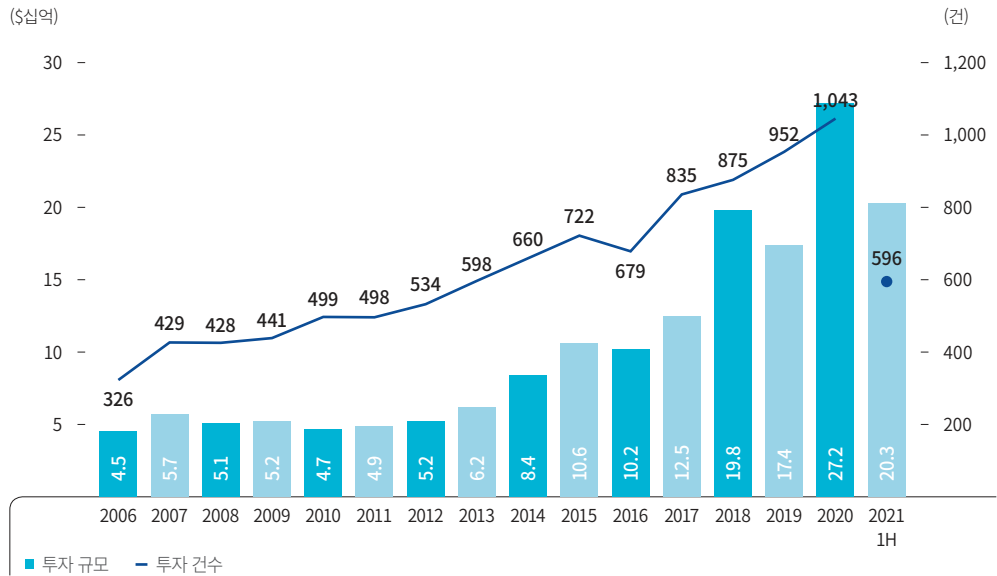
그림 17 미국 B2C 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제약/바이오테크 분야에는 596건의 203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평균 투자기업 기업가치는 다른 섹터 대비 낮은 1억 4천만 달러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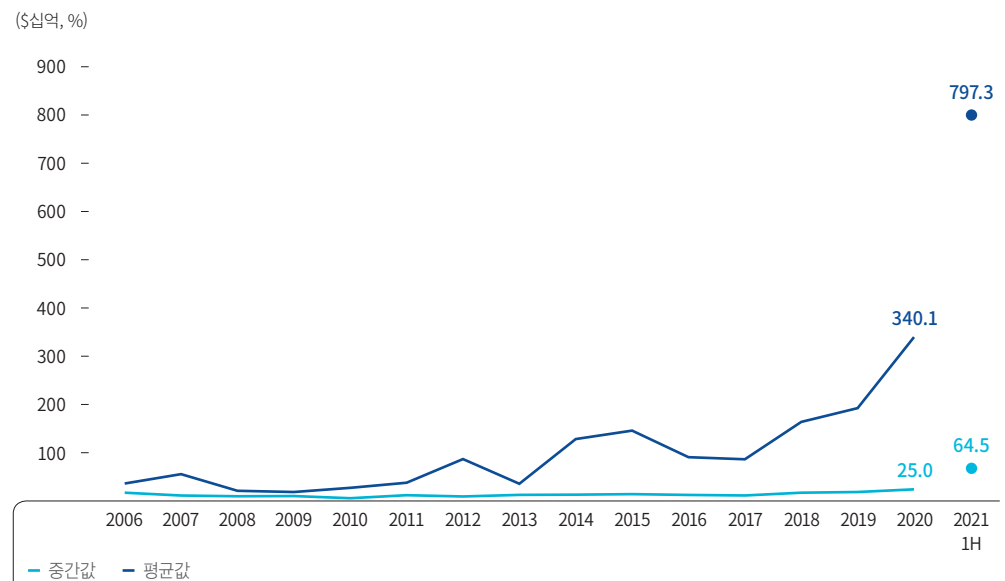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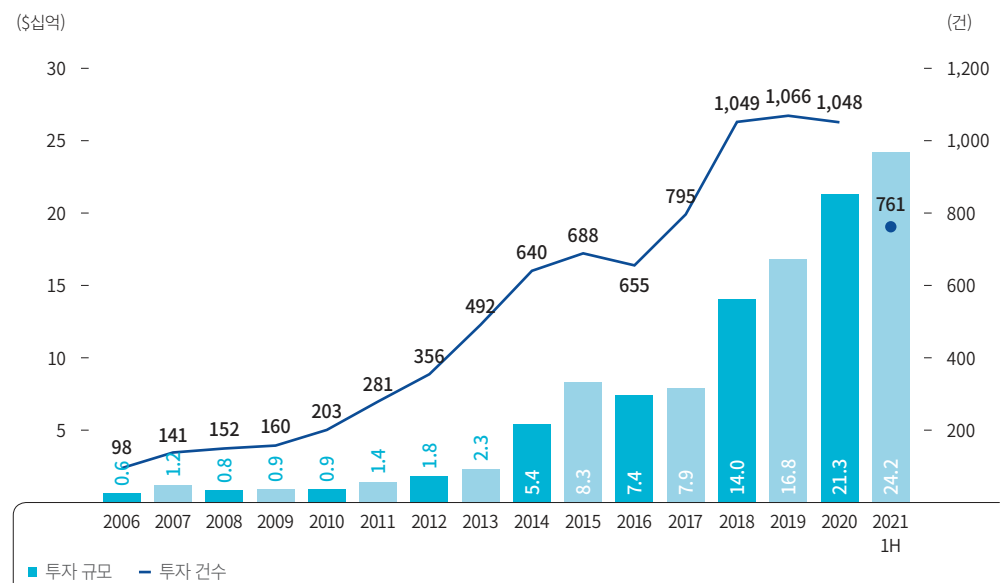
그림 18 미국 VC 제약/바이오테크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규모(상)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핀테크 분야에는 761건의 242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작년 온기 수준을 넘어섰다. 평균 기업가치는 8억 달러 수준으로 B2B 섹터의 값을 상회해 4개의 주요 섹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글로벌 투자 유치 상위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핀테크 업체로 C6Bank(\$20억), Trade Republic(\$9억), Mollie(\$8억)가 있었다.

그림 19 미국 핀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VC 시장 내 투자자들(Alternative 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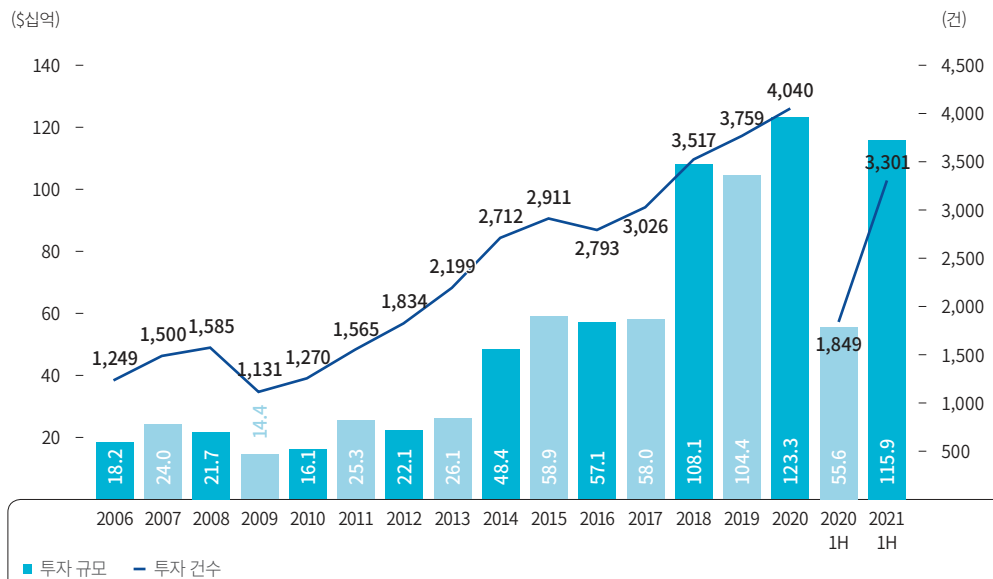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비전통적 투자자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투자가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IPO 회수 시장의 성장세로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VC 투자 참여 규모는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1년도 상반기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 규모는 총 1,1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하였으며, 전체 VC 투자 규모의 77.3%에 해당하는 딜에 참여하였다. 특히 후기 단계 집중도가 높았다. 총 투자 건의 48%, 투자 규모의 79%가 후기 단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VC 시장의 후기 단계 집중인 32.1%(건수), 72.4%(규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투자 딜 중에 비전통적 투자자가 리드이거나 단독으로 투자를 진행한 투자 규모 비중은 56%로 10년 전 대비 23%p 상승하였으며,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55%를 상회하였다. 이는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역할이 VC 시장에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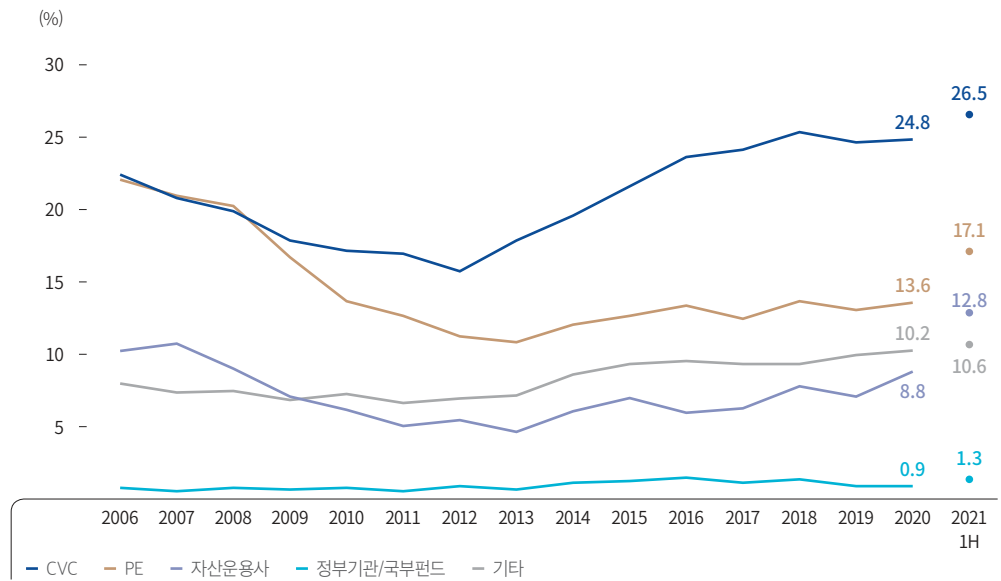
2분기에는 Zoom, CVS, United Airlines 등이 CVC 투자자로서 활동을 개시하면서 CVC 투자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상반기 CVC가 참여한 딜 규모는 637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2.4% 상승하였다. 전체 VC 투자 규모 대비 CVC가 참여한 규모는 45.3%로 나타났다.

그림 20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1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건수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회수(Exit)

• M&A 관련 회수 규모(M&A value)는 보고되거나 공개된 값에 근거한다. IPO 관련 회수 규모(IPO value)는 IPO price로 계산한 기업의 프리머니 기준 기업가치이다.

21년도 상반기 회수 시장은 20년도 온기 실적인 2,875억 달러를 상회한 3,722억 달러, 883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2분기 대표적인 IPO 건으로는 85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NASDAQ:COIN), 290억 달러 가치로 상장한 RPA(Robot Process Automation) 서비스 업체 UiPath(NYSE:PATH), 143억 달러 가치로 상장한 B2C 결제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Marqeta(NASDAQ:MQ) 등이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IPO가 이루어지면서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회수 건 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 17.9%로 5년 전 8.8%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회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IPO 건수 비중은 18%(123건), 금액 비중은 89.7%(3,339억 달러)로 상반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 IPO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다.

IPO 시장뿐만 아니라 M&A 시장도 활황이었다. 상반기 동안 435건, 307억 달러 규모의 인수 건이 발생하였으며, 1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형 딜들이 전체 M&A 건수의 36.5%를 차지하였다. 한편, SPAC 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정보업체 Refinitiv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SPAC 상장 규모는 127억 달러, 64건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86%, 79% 크게 감소하였다. SPAC의 신주인수권을 특정 상황에서는 자본 대신 부채로 인식하도록 SPAC의 회계 감독 규정이 강화되었고, SPAC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 영향으로 2분기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22 미국 VC 투자기업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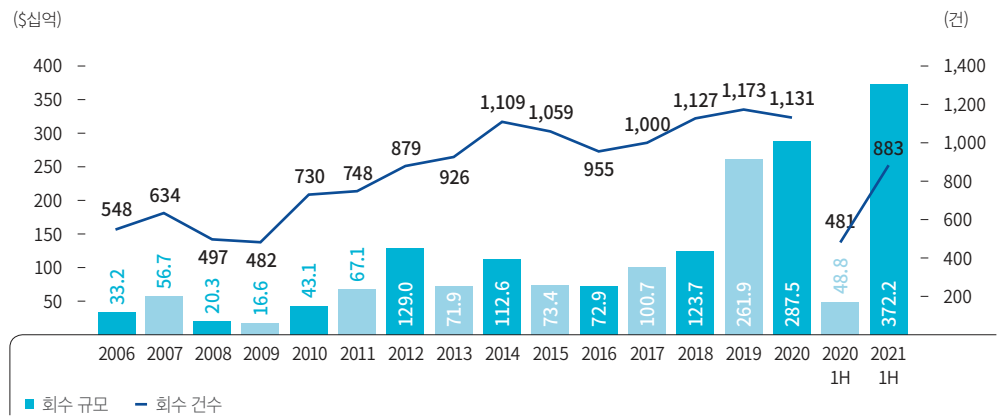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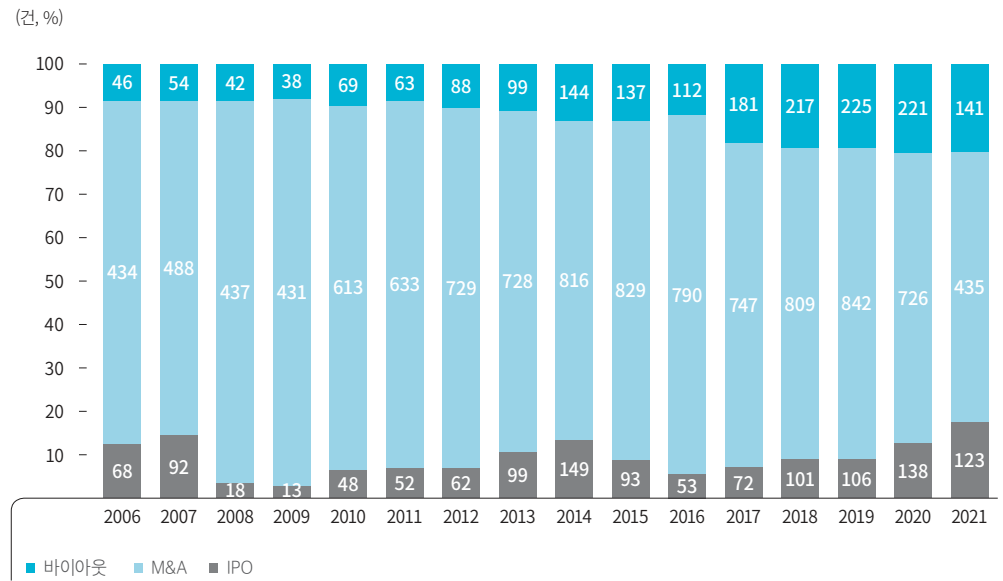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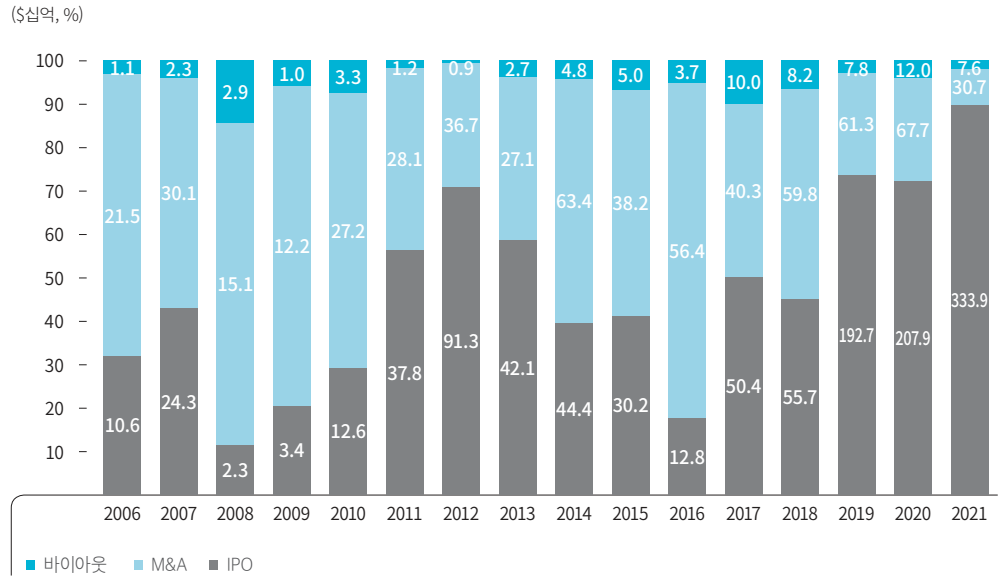


그림 23 미국 VC 투자 기업 회수 유형별 현황 : 금액 합계(상) 건수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European Venture Report, 2021년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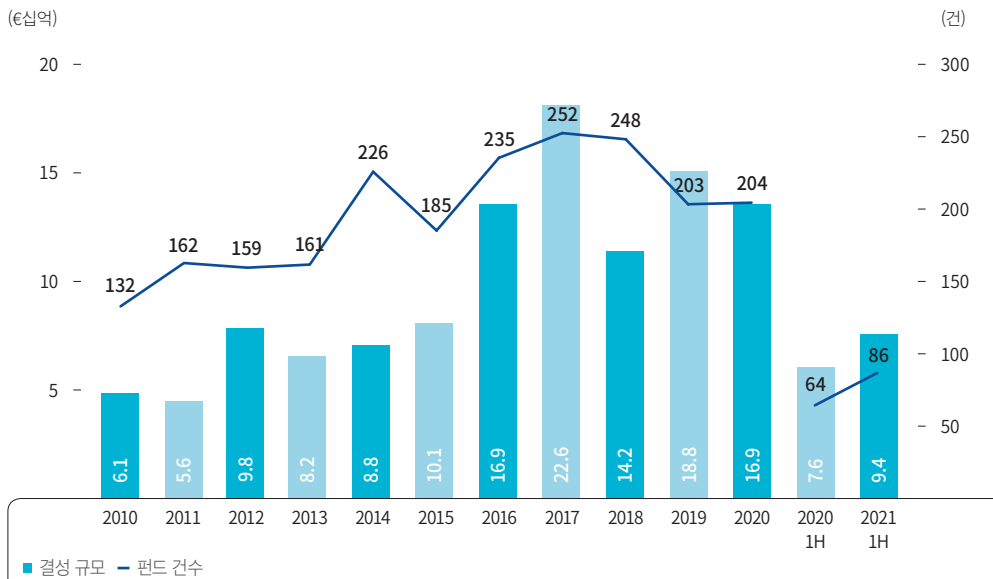
• European Venture Report는 PitchBook이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결성(Fundraising)

2021년도 상반기 유럽에서는 총 94억 유로, 86개 VC 펀드가 결성되었다. 작년 동기 대비 결성 규모가 24.3% 증가해, 21년도 결성 규모는 20년도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총 펀드 결성 규모의 73.0%에 해당하는 펀드가 1억 유로 규모 이상으로 결성되었다. 한편 5억 유로 이상 규모의 펀드 비중은 약 12.6% 수준으로 미국의 64.8% 대비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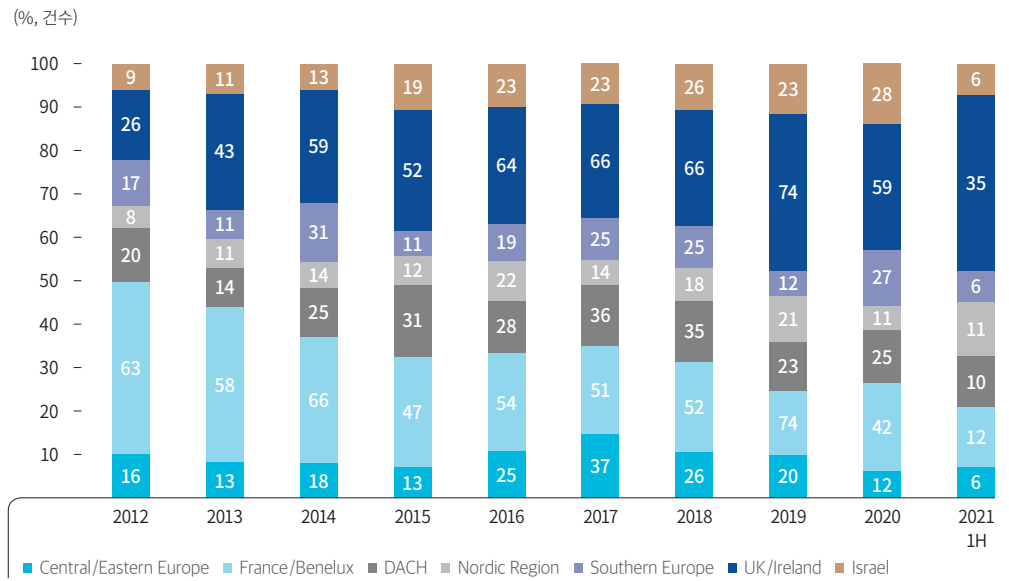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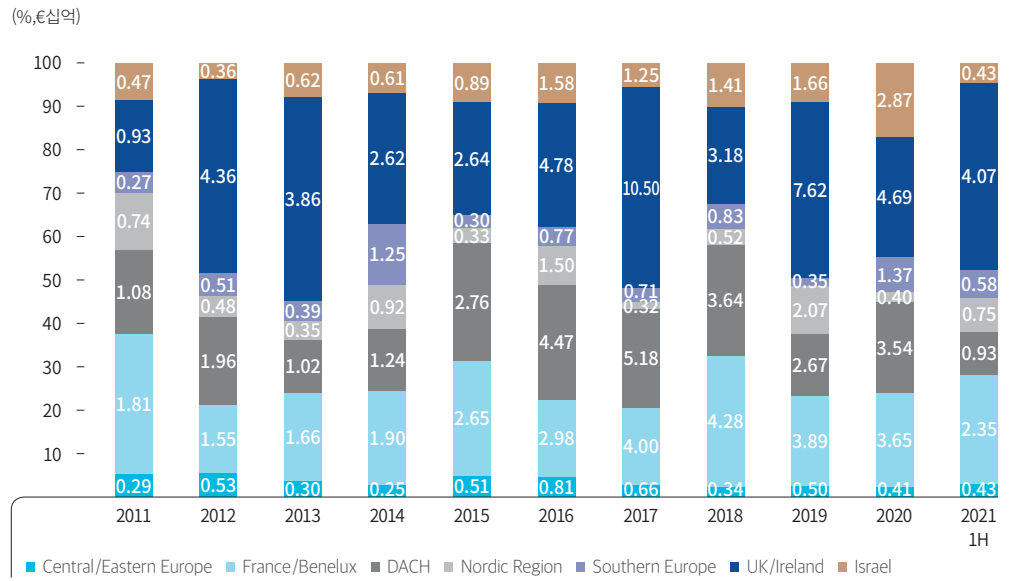
유럽 지역 중 UK/아일랜드 지역에서 펀드레이징이 가장 활발하였다. 상반기 UK/아일랜드 지역에서 총 결성 규모의 43.2%에 해당하는 41억 유로 규모의 35개 펀드가 결성되었다. 2분기 유럽에서 결성된 대표적인 펀드는 미국 기반 VC인 Accel의 5억 4천만 유로 규모의 펀드가 있었다. Accel은 Deliveroo, Hopin, Vinted 등 유럽의 유명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진행하였다. 또한 바이오/제약 전문 펀드 결성이 돋보였다. 영국의 Abringworth Management의 4억 8천만 유로 규모의 펀드와 벨기에의 Droia Oncology Ventures의 2억 2천만 유로 규모의 펀드가 있었다.

그림 1 유럽 VC 펀드 결성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그림 2 유럽 VC 펀드 지역별 결성 현황: 금액 기준(상) 건수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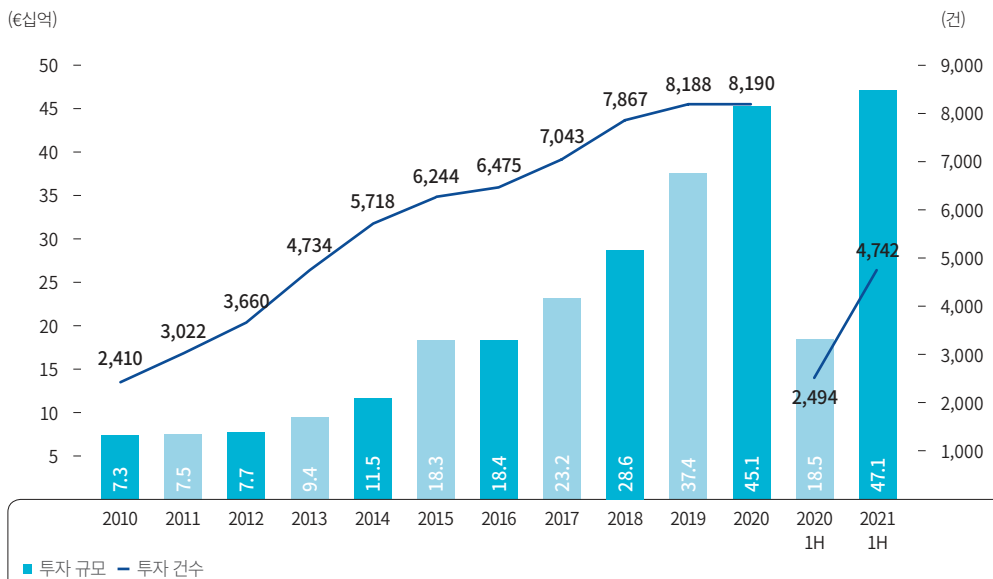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투자(Deal)

2021년 상반기 동안 총 역대 최고 수준인 4,742건의 471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약 2.5배 증가했다. 단계별 투자 규모 비중은 후기 단계 73.8%, 초기 단계 20.8%, 엔젤/시드 단계 5.4%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기 단계는 20년도에 전체 투자 규모의 60.5%를 차지한 것과 대비 비중이 크게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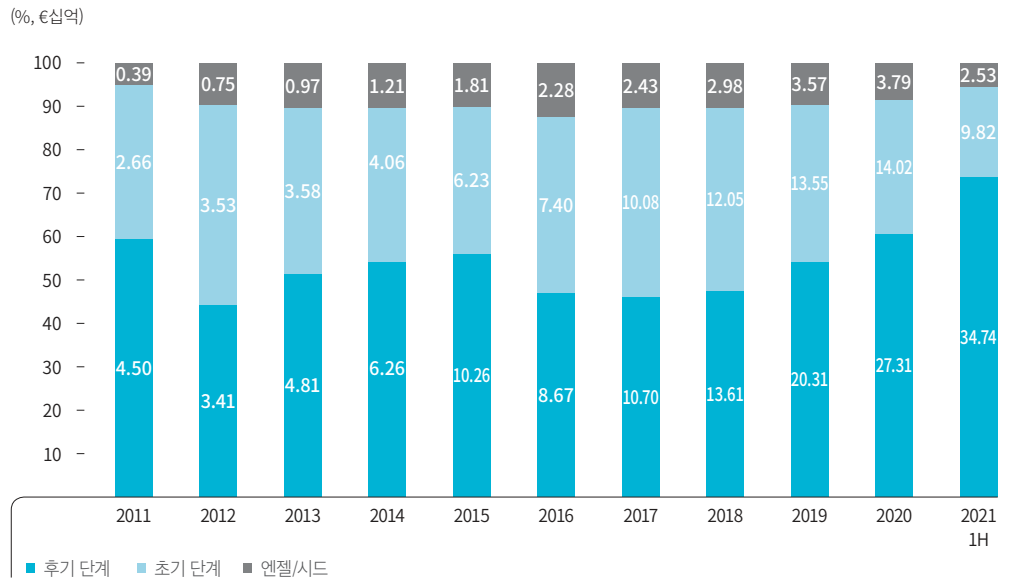
상반기 2천 5백만 유로 이상의 투자 건이 전체 투자 규모의 75.8%를 차지하였다. VC 시장에 PE와 국부펀드 등 자금력을 갖춘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면서 투자 규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가장 큰 투자 건은 스웨덴의 배터리 생산업체 Northvolt로 23억 유로 규모의 딜 클로징이 있었다. 주요 투자자는 스웨덴의 AP 연금 펀드, 캐나다의 OMERS 연금 펀드, 골드만삭스, 폭스바겐이 있었다. 이외 6.5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모두 기존 유니콘 기업인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MessageBird, 프로세스 마이닝 업체 Celonis, 주식 거래 플랫폼 Trade Republic의 딜에서 발생했다. 투자 유치 상위 지역은 UK/아일랜드(146억 유로, 31.0%), DACH(89억 유로, 19.0%), 프랑스/베네룩스(82억 유로, 17.4%)로 나타났다.

그림 3 유럽 VC 펀드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그림 4 유럽 VC 단계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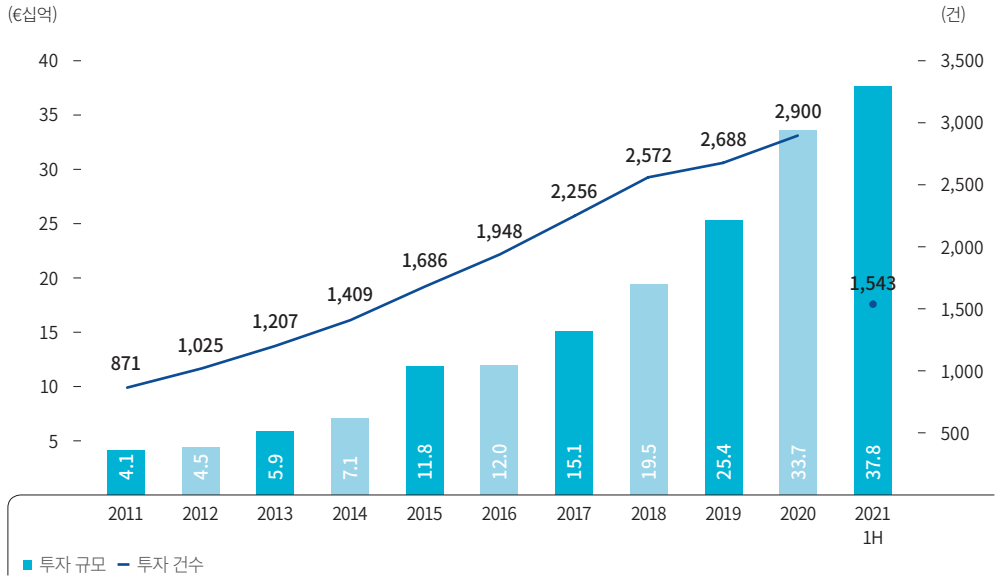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 VC 시장 내 투자자들(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비전통적 투자자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상반기 비전통적 투자자 참여 규모는 378억 유로로 작년 온기 규모를 상회하며, 전체 투자금액의 80.3%를 차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E, 연기금, 국부펀드, 헤지펀드 등 자금력을 갖춘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VC 시장 참여 증가는 투자 규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Northvolt 이외에도 암스테르담의 온라인 결제 API 제공 업체 Mollie는 대형 PE인 EQT Partners와 Blackstone Group 등으로부터 6.6억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MessageBird도 미국의 BlackRock, Accel, Y Combinator 등으로부터 8.3억 유로 투자를 유치했다. MessageBird는 미국의 Twilio(NYSE :TWLO)의 경쟁사로 미국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이메일 플랫폼인 SparkPost를 5억 유로에 인수했다.

그림 5 유럽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 참여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 회수(Exit)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규모 IPO 건들이 유럽 회수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상반기 회수 규모는 총 468억 유로 규모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실적이다. 전체 회수 규모 중 IPO 규모는 90건, 372억 유로로 전체 규모의 79.4%를 차지하였으며, 284건의 인수합병이 90억 유로로 전체 규모의 19.1%를 차지하였다.

1분기 대규모 IPO는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Deliveroo(LON:ROO, 66억 유로)와 중고차 판매 플랫폼 Auto1(FRA: AG1, 66억 유로)가 있었으며, 2분기에는 협업툴 업체 Monday.com's(NASDAQ:MNDY, 51억 유로), 디지털 자동화 플랫폼 WalkMe(NASDAQ:WKME, 19억 유로),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 업체 ATAI Life Sciences(NASDAQ:ATAI, 17억 유로)가 있었다.

지역별 회수 동향을 살펴보면 UK/아일랜드 지역이 총 회수 규모의 45.5%(213억 유로), DACH가 23.0%(108억 유로), 이스라엘이 21.1%(99억 유로)를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은 작년 온기 대비 회수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Monday.com's과 WalkMe의 대규모 상장의 영향이다.

그림 6 유럽 VC 투자기업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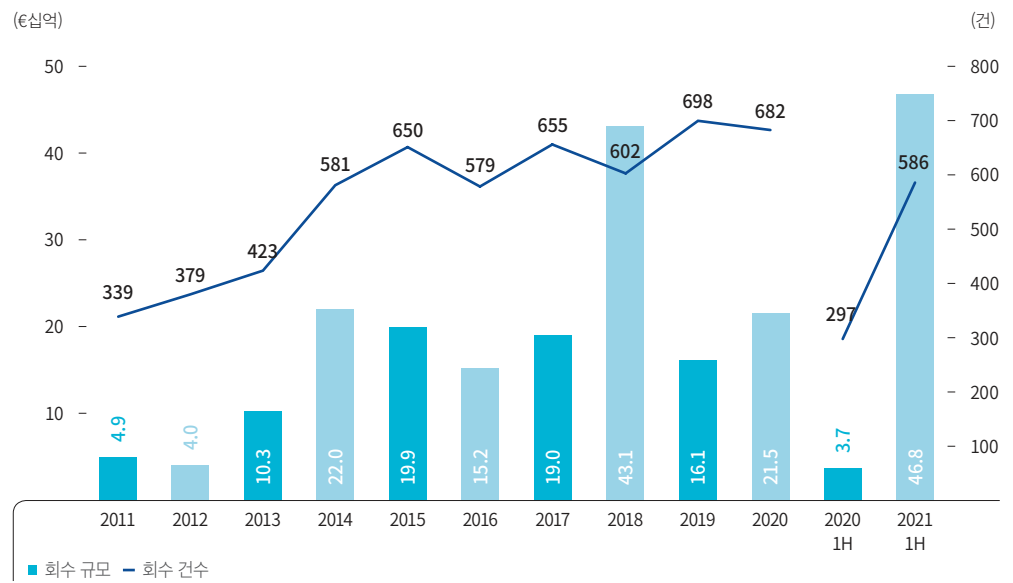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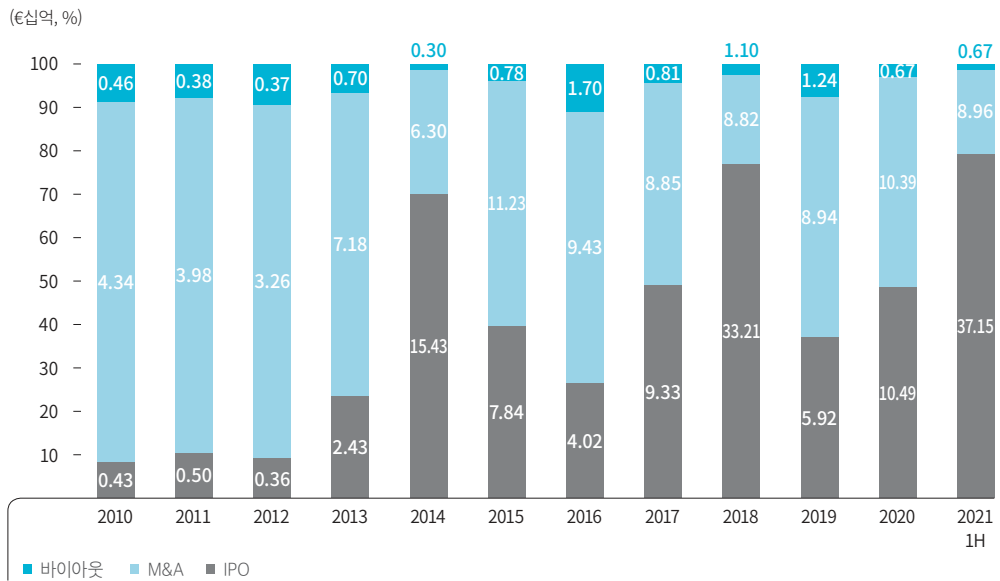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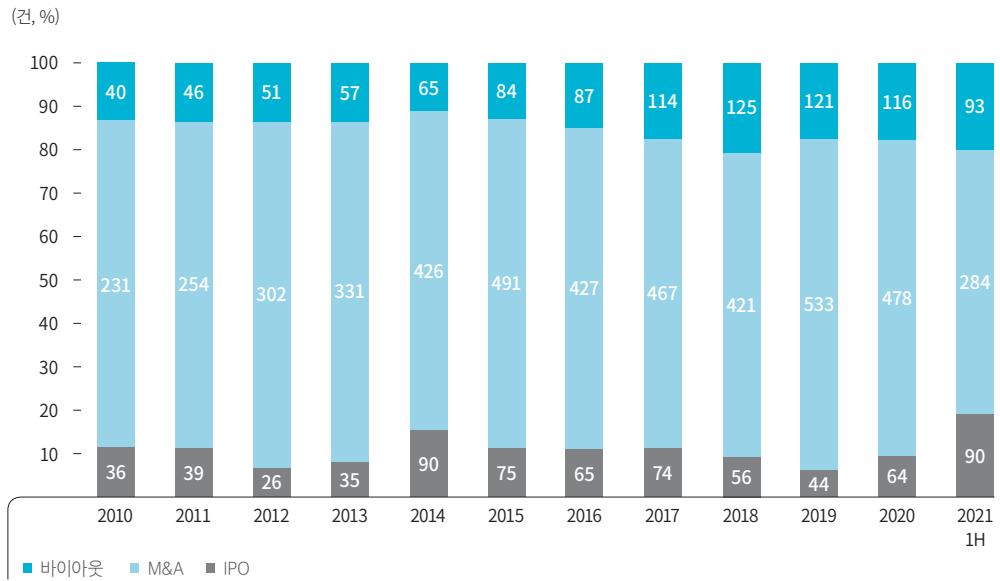


그림 7 유럽 VC 투자기업 회수 유형별 현황: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State of Venture Report, 2021년 2분기)

• State of Venture Report는 CB Insights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벤처캐피탈 시장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투자

2021년 2분기 중 세계적으로 총 7,751건 1,562억 달러가 VC 시장에 투자되었다. 상반기 기준 15,227건 2,92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이다. 2분기 동안 북미/남미 지역 817억 달러, 3,047건, 아시아 지역 2,577건, 424억 달러, 유럽 지역 1,821건, 306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상반기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Mega-Round 투자 건이 전체 투자 건의 5% 수준을 보였으며, 후기 단계 평균 투자 규모는 1억 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표 1 2분기 글로벌 투자 유치 상위 10개 기업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	투자자
Orange Heart Optimal Technology	중국	이커머스	\$3.0B	Didi Chuxing 등
Northvolt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2.7B	Andra AP-fonden, Tillaegspension 등
C6 Bank	브라질	디지털 은행	\$2.0B	J.P. Morgan Chase & Co.
J&T Express	인도네시아	물류 서비스	\$1.8B	Sequoia Capital China, Hillhouse Capital 등
Epic Games	미국	게임	\$1B	AllianceBernstein, Sony, GIC 등
Celonis	독일	프로세스 마이닝	\$1B	Franklin Templeton, Splunk Ventures 등
Trade Republic	독일	자산 운용, 주식 거래	\$900M	Global Founders Capital, Maveron, Fortress Investment Group 등
Caris Life Sciences	미국	바이오테크	\$830M	OrbiMed Advisors, Highland Capital Management 등
Swiggy	인도	이커머스	\$800M	Accel, Carmignac, Falcon Edge Capital, 등
Mollie	네덜란드	결제 플랫폼	\$800M	General Atlantic, Blackstone 등

출처 CB Insights State of Venture Report Q2 2021

♣ 유니콘

상반기 신규 유니콘 수는 총 249개로 작년 동기간 44개 증가한 것과 대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2분기 신규 유니콘은 미국 76개, 아시아 33개, 유럽 17개, 캐나다 7개, 라틴아메리카 2개로 나타났다. 비상장 기업 중 가장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은 중국의 ByteDance(\$1,400억), 미국의 Stripe(\$950억)와 SpaceX(\$740억) 순으로 나타났다.

♣ 회수

상반기 총 5,203건의 M&A, 503건의 IPO 회수 건이 발생하며, 작년 동기간 대비 각각 81.8%, 132.9% 상승하였다. IPO에 성공한 대표적인 딜로 중국의 공유 자동차 업체 Didi Chuxing(\$73B),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65B), UiPath(\$29B), 모바일 게임업체 AppLovin(\$29B)가 있었다. 대표적인 M&A 딜로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업체 Tokopedia가 180억 달러 규모로 차량공유 서비스 Gojek과 합병한 건이 있었다.

유니콘 기업 현황

(CB Insights, 2021년 08월 03일 기준)

2021년 8월 3일 기준 The Global Unicorn Club에는 35개국에서 배출한 779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가 2조 4,84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의 유니콘으로 CB Insights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기업은 총 11개*이다. 등재된 기업으로는 크래프톤(8월 10일 코스피 상장예정), 컬리, 위메프, 옐로모바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엘앤피코스메틱, 에이프로젠, 아놀자, 쏘카, 무신사, GP클럽이 있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은 총 34개이며, 미국 14개 기업, 중국 8개 기업, 영국 3개 기업, 인도와 홍콩이 각각 2개 기업, 싱가포르, 브라질, 독일, 스웨덴, 호주에 각각 1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CB Insights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7월 중기부가 추가적으로 발표한 유니콘 기업(4개)은 두나무, 직방, 티몬, 기업명 비공개 1개사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샌드버드(미국 본사), 스마트스터디가 있었으며, 당근마켓은 약 3조 원의 가치로 투자 유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2 국가별 유니콘 기업 개수 및 기업가치 총계

(단위 : 개, \$십억)

국가	유니콘 기업 개수	유니콘 기업 가치 총계
미국	392	1249.5
중국(홍콩 포함)	162	563.0
인도	34	115.7
영국	31	125.7
독일	18	46.4
이스라엘	18	25.0
프랑스	17	29.5
캐나다	13	26.4
브라질	11	52.7
한국	11	28.7
싱가포르	7	23.1
일본	6	8.0
호주	6	22.9
스위스	5	8.0
인도네시아	5	18.9
네덜란드	4	13.3
스웨덴	4	58.1
아일랜드	3	6.2
아랍에미리트	3	4.5
멕시코	3	8.2

출처 CB Insights

* (KVIC 주) 3개 이상 유니콘 보유 국가 기재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모태 출자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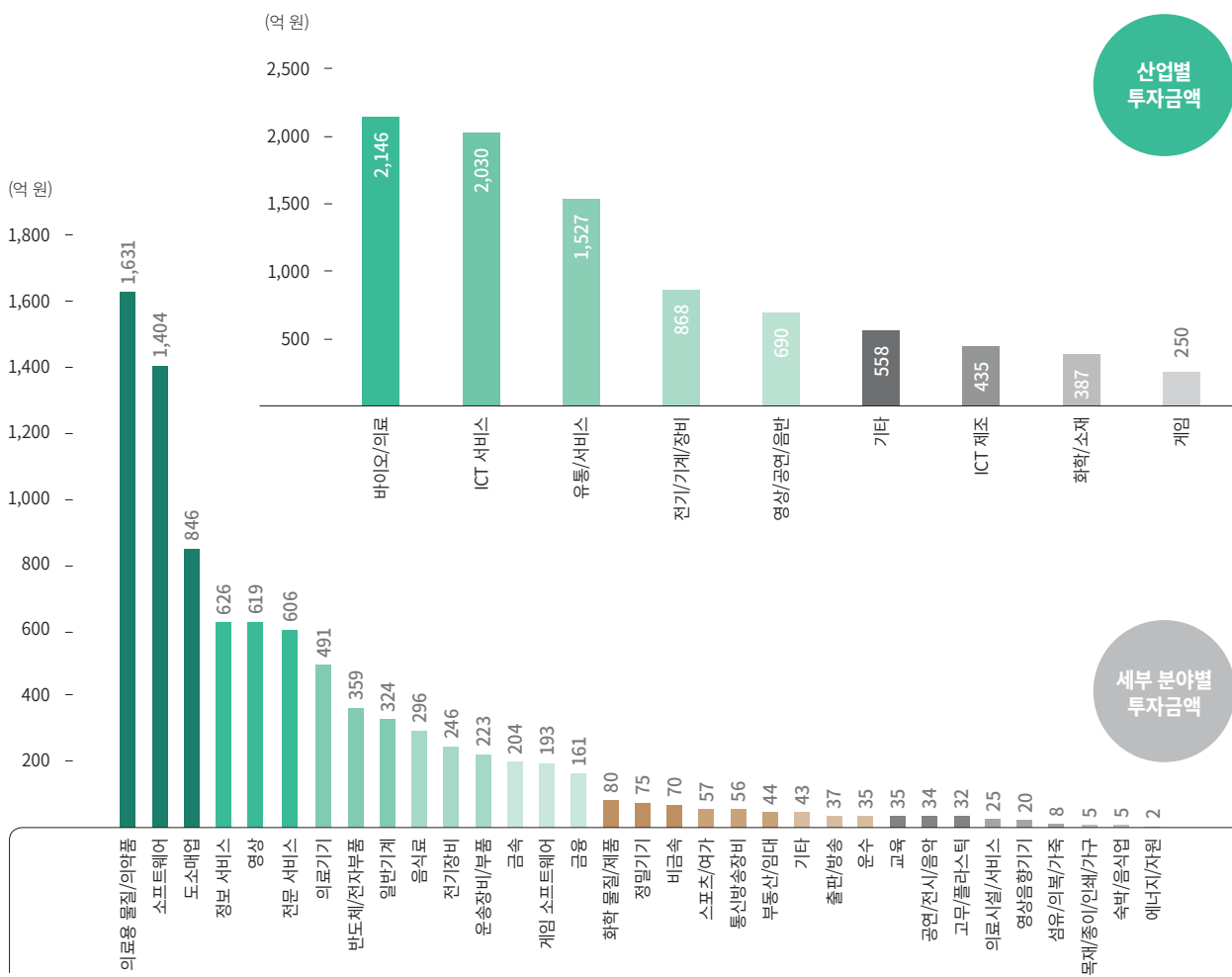
투자 산업 트렌드 /

해당 보고서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1년 2분기(4~6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2021년 2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2021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494개(6.0% YoY)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8,890억 원(37.6% YoY)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18억 원으로 작년 동 분기 대비 29.8% 상승하였다. 산업별로는 바이오/의료(2,146억 원, 45.1%YoY), ICT 서비스(2,030억 원, 33.2%YoY) 유통/서비스(1,527억 원, 73.7%YoY)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프로젝트에 1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전체 투자금액의 64.2%를 차지하였다. 작년 동 분기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섹터는 화학/소재(387억 원, △13.7%YoY) 산업이었으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섹터는 영상/공연/음반(690억 원, 81.4%YoY)산업이었다.

그림 1 2021년 2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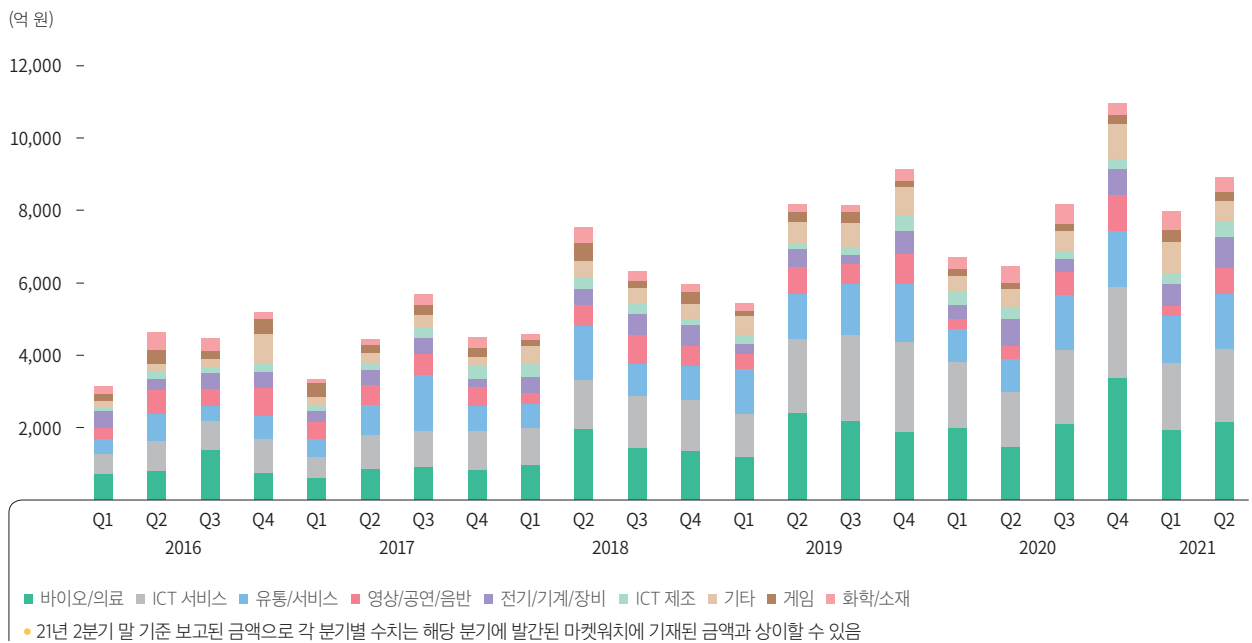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은 1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하였다.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바이오/의료(24.4억 원), 기타(23.2억 원, 기타 분야 중 음식료 세부업종의 한 기업이 260억원 유치), ICT제조(21.7억 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업종은 영상/공연/음반(11.3억 원), ICT 서비스(14.8억 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메가딜(기업당 투자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은 8건으로 직전 분기 10건 대비 감소하였으나, 작년 동기 5건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HMR 간편식, 재능 거래 플랫폼, 이차전지 분리막, 수술용 의료 로봇, AI 반도체 설계 등을 주요 제품 및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들이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림 2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추이



지난 5년간 산업별 투자 규모 추이를 분기 기준 시계열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가 타 산업 대비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년도 1분기 3개 분야의 투자 규모 비중은 53.7%였으나, 21년도 2분기에는 10.5%p 증가한 64.2%를 차지하였으며, 18년도 2분기 이후 6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표 1 2021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개)

분류	투자금액(억원)	투자기업 수	평균 투자금액
총 합계	8,890.5	494	18.0
바이오/의료	2,146.3	88	24.4
의료용물질/의약품	1,630.6	62	26.3
의료기기	490.7	24	20.4
의료시설/서비스	25.0	2	12.5
ICT서비스	2,029.9	137	14.8
소프트웨어	1,403.7	92	15.3
정보서비스	626.2	45	13.9
유통/서비스	1,527.1	91	16.8
도소매업	846.0	44	19.2
전문서비스	606.4	43	14.1
운수	35.0	1	35.0
교육	34.7	2	17.3
숙박/음식업	5.0	1	5.0
전기/기계/장비	867.8	42	20.7
일반기계	324.1	19	17.1
전기장비	245.7	11	22.3
운송장비/부품	223.0	6	37.2
정밀기기	75.0	6	12.5
영상/공연/음반	690.2	61	11.3
영상	619.0	53	11.7
출판/방송	37.2	3	12.4
공연/전시/음악	34.0	5	6.8
기타	558.0	24	23.2
음식료	295.8	5	59.2
금융	160.7	7	23.0
부동산/임대	44.0	4	11.0
기타	42.5	4	10.6
섬유/의복/가죽	8.0	2	4.0
목재/종이/인쇄/가구	5.0	1	5.0
에너지/자원	2.0	1	2.0
ICT제조	434.9	20	21.7
반도체/전자부품	358.5	13	27.6
통신방송장비	56.4	6	9.4
영상음향기기	20.0	1	20.0
화학/소재	386.6	18	21.5
금속	204.0	5	40.8
화학물질/제품	80.1	8	10.0
비금속	70.0	3	23.3
고무/플라스틱	32.5	2	16.2
게임	249.7	13	19.2
게임소프트웨어	193.2	11	17.6
스포츠/여가	56.5	2	28.3

출처 한국벤처투자

• 기업 수 합계는 중복 제거 수치

표 2 2021년 2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KEYWORDS

<p>바이오/의료</p>	<p>#제조업 의료장비 및 약물개발 #체외진단 암 선별검사 및 표적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광우병혈액진단시스템 #다관절 직관형 복강경 수술 기구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Digital PCR #PPI 기반 항암제 동반진단 #고난도 수술자임을 위한 인공지능 영상SW #APC(항체 프로탁 접합체)기술 기반 항암제 #진동형 휠체어 #식물기반 단백질 의약품 생산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스마트폰 기반 만성질환관리용 혈액분석 체외진단 솔루션 #간암 유전자치료제 유효물질 #냉각마취 의료기기 #바이오3D프린터 #의료용 수술로봇 #줄기세포 기반 오가노이드 치료제 개발 #피부, 골관절염 등 재생의학치료제 연구 개발 #금상출혈 치료제 #AI기반 의료용 X-Ray 판독장비 #노인돌봄 서비스 통합 중개 플랫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난치성 질환 치료제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기 및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신개념 전자기파(EM)기반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망막관련 및 섬유유화관련 질환 치료제 #골형성 촉진능 보유 합성 유도체 개발 #유전체분석 정밀의료 #천연물 신약 #뇌질환 치료용 미주신경 자극기 #다중조합 단백질 바이오마커 #사이토카인 타깃 저분자 신약 #신경도관 등 재생의료 플랫폼 #엑소좀 기반의 조기 암진단기기 제품 #AI 및 양자역학 기반 가상구조 신약개발 #자가면역질환 항체치료제 신약개발 #유전자 조작 세포 치료제 #골질환 치료 #치주염 예방 관리 #역분화 줄기세포 치료제 #근감소증치료제 #우울증 진단기기 개발 및 우울증 디지털치료제 개발 #바이오 혁신신약 연구개발 #초음파 캡슐내시경 #IMiDs 기반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및 난치성 암 치료제 #줄기세포 의약품 #PWS 치료제 개발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다중면역 항체 치료제 개발 #대사물질 AI 분석 솔루션 #휴대용 칼륨 측정기기 #항암바이러스기반 면역요법 치료제 #광초음파 영상장치 및 현미경 제조 #ADC 신약 개발</p>
<p>ICT 서비스</p>	<p>#자동차 및 산업 기계 시뮬레이터 #전자책 서비스 #모바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폐기물 통합처리 솔루션 #의료영상진단 플랫폼 #서비스 커머스 플랫폼 #HMR 플랫폼 #문서 전자화 #마이크로 물류 플랫폼 #중소사업자 대상 회계 서비스 #자율주행 #멘탈 헬스케어 플랫폼 #패키지 여행 상품 검색 및 예약 어플 #반도체연구개발 #주얼리 커머스 #빅데이터 기반 여행콘텐츠 플랫폼 #인테리어 3D 모델링 S/W #중고차 구독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 작곡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뇌구조 분석 소프트웨어 #SW교육 창작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저작권료 유통 플랫폼 #스마트치트 #배달대행 플랫폼 #AI 건축 설계 플랫폼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미술품 분할거래 플랫폼 #수업커뮤니티용 소프트웨어 #약물후보물질 도출 #의원용 전자차트 개발 및 공급 #AI 기반 영어학습 #진로 멘토링 서비스 #점술인/역술인 중개 및 추천 플랫폼 #증권대차거래 전산화 솔루션 개발 및 운영 #신용카드 발급 중개 #B2C 이모티콘 서비스 플랫폼 #피트니스 트레이너 O2O서비스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 시험 학습 플랫폼 #스마트 주차 솔루션 #홈레이닝용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플랫폼 #반려동물 건강진단/관리 #디스플레이 옥외 광고(텍스) 및 도식데이터 수집 및 판매 #채용 관리 솔루션 #방역 서비스 및 관리 플랫폼 #렌터카 매각 플랫폼 #골프장 운영 시스템 #패션 B2B 플랫폼 #여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렌터카 O2O 모바일 예약 플랫폼 #콘텐츠 IP 자산 운용 및 거래 플랫폼 사업 #비디오 컨퍼런스 및 가상회의 도달 솔루션 #완전무인화 주방 시스템 개발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건물 균열관리 IoT 시스템 #도심형 Personal Mobility 연계서비스 #3D 실감형 콘텐츠 제작 #딥러닝 기반 비전(Vision) 검사 소프트웨어 및 장비 #금융기관 대상 종합펀드서비스 #아웃도어 마켓플레이스 #베트남 B2B 핀테크 API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비대면 원격교육 #SNS 기반 주식 투자 플랫폼 #아파트 이웃간 P2P 차량 대여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및 유아동 콘텐츠 플랫폼 개발 #협동형 로봇 시스템 #인슈어테크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충전서비스 #공유미용실 플랫폼 #AR 게임 및 AR홀피트니스 #유럽 지구 부가세 환급 서비스 #캠핑장 예약 플랫폼 #스크린샷 분류/검색 서비스 #차량공유 플랫폼 #인공지능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 #AI 기반 맞춤형 영어문제 풀이 서비스 #전력거래 플랫폼 #SNS 기반의 주식투자 거래 및 중개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사 #커스터마이징 화장품 생산 스마트팩토리 #항공 위성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알약 계수 어플리케이션 #보안 IP 및 반도체인칩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용 IoT 로봇 #익명SNS커뮤니티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모바일 간편송금 앱 서비스 #SaaS 기반 증권 관리 플랫폼 #SaaS기반 VOC 시스템</p>
<p>유통 서비스</p>	<p>#명품 커머스 플랫폼 #경영컨설팅 및 솔루션제공 #공유오피스 서비스 #여성류 브랜드 #중고차 거래 플랫폼 #가사서비스 중개 플랫폼 #간편식 플랫폼 #P2P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 서비스 #반려동물 장례식장 #수산물 가공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신발 트렌드 분석 #샐러드 #크로스보더 C2C 패션/뷰티 이커머스 플랫폼 #유류공간 재생동한 스마트스테이플랫폼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 #스타일테크(AR/VR/3D)기반 패션메타 커머스 플랫폼 #배달 대행 서비스 #기업 간식 배송 및 진열 서비스 #렌터카 예약 및 차량구독 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취미생활 및 DIY 판매 #아파트 관리 앱 #4050 모바일 패션 커머브 #침구류 #인테리어 디자인 #온라인 가구 유통 및 판매 #스마트팜 및 솔루션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및 플랫폼 제공 #스포츠 마케팅 서비스 #AI 푸드스캐너 #제주수산물 기반 HMR 및 밀키트 제품 #주류 #미술품 경매 색조 화장품 브랜드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 #통합물류서비스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중고명품 메타검색 플랫폼 #의류생산 대행</p>
<p>영상/공연/음반</p>	<p>#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장편영화 #영화제작/배급 #유아용 교재 제작 및 교육 #MCN 플랫폼 #웹드라마 #숏폼 웹드라마 제작 #영화투자 #지역 문화 콘텐츠 기반 서비스 #웹툰 #공연기획 및 제작 #실시간 3D 렌더링</p>
<p>기타</p>	<p>#냉동 식품류 #건강기능식품 #프로젝트 투자 #곤충축산업 #해조류를 이용한 대체육류 개발 #황사보건용마스크 #시설 개발 및 건설링</p>
<p>화학/소재</p>	<p>#히토류 마그넷 #조선훈형 #액화수소 저장용기 이송관 #산업용 불화탄소가스 #탄소섬유 #친환경기능성 바이오소재(나노셀룰로오스) #탄소섬유플라스틱 재활용 #탈질폐촉매 기반 희귀금속 추출 #전기변색필름 #지속가능한 항공유 #그래핀 #방연 계면 물질 #나노사이즈 PCL 필러 #유해가스 제거용 촉매 #공기청정기 필터용 활성탄 소재</p>
<p>전기/기계/장비</p>	<p>#선발안전벨트 #웨그선 제조 #마이크로 LED배선 #스마트 LED 조명 제조 #산업용 협동로봇(COBOT) 제조 #연료전지파워팩 #터보블로워 #전동석션칫솔 #자율주행 물류로봇 #리튬이차전지 #광통신부품(광통신반도체) #안과질환 진단용 광간섭단층촬영장치 #복합공기순환기 #조선용 수처리장치 PE 코팅 #애완동물용 로봇 및 소프트웨어 #친환경선박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 #무인 항공기 S/W 및 H/W 개발 #아차전지 분리막 코팅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및 재제조 #스마트팜 시설장치 #태양광일체형패널 #OLED 검사장비 #CNT 도전재 #아연 브롬 전지(비발화 배터리)를 활용한 ESS 제품 개발 #제조용 물류로봇(AMR) 제작</p>
<p>게임</p>	<p>#모바일게임 개발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AR게임 #PC 전략 게임</p>
<p>ICT 제조</p>	<p>#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반도체 다이오드 #광통신 부품 #반도체기반 의료용 분자진단기기 #개방형 카세어링 플랫폼 #AI 전용 하드웨어 및 운용 소프트웨어 설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및 판매 #홈/산업용 IoT 제품 #스마트 물류 보안 RF모듈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인버터 전력반도체 #마이크로 LED 인터포저 및 전자장비 제조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NFC 모듈 #마그네틱 기술 기반 로봇 툴 체인저 #Vision 기술 기반 외관 검사 자동화 장비 #초고속 초광대역 커넥터 개발 #전자집적회로</p>

출처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